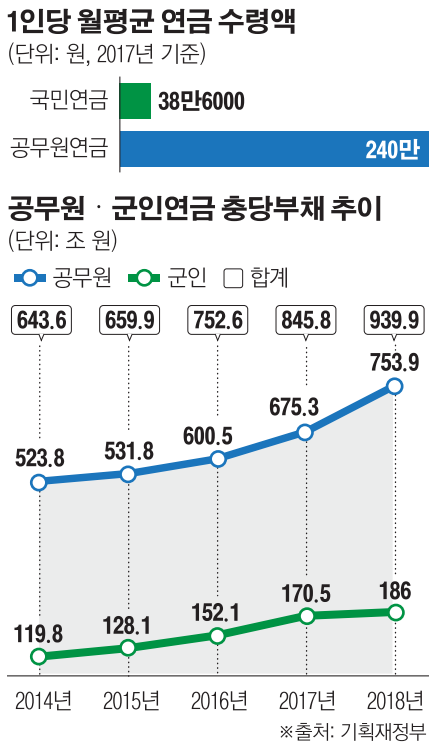


연 2兆 ‘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형평성 논란



스페셜 리포트

공무원연금은 ‘세금 먹는 하마’다. 1년에 수조 원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평균 수령액은 국민연금보다 6배 많다. 형평성 시비와 함께 국민연금과의 통합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관련기사 3면

지난해 국가결산 재무제표상 연금총당부채는 939조9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94조1000억 원(11.1%)이 늘었다. 공무원연금총당부채(누계 753조9000억 원)가 78조6000억 원(11.6%) 증가한 게 결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기증원 포함)이 예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이 평생 수령할 연금액을 총 92조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무원연금총당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연금총당부채는 지출만 고려한 미확정

추정치로 그 자체가 나랏빚인 ‘채무’를 의미하진 않는다. 부채의 상당분은 재직자 기여금과 국가 부담금(이상 보험료)으로 충당된다. 공무원연금은 지난해에도 11조400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있었다. 특히 연금총당부채는 화폐의 현재·미래 가치 간 차이인 할인율에 따라 변동 폭이 커 지출이 늘지 않아도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지 오래다. 정부는 매년 국고로 공무원연금 적자분을 보전하고 있다. 2016년 2조3000억 원, 2017년 2조3000억 원, 지난해에는 2조2800억 원을 쏟아부었다. 지출액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은 현재 10%대 초반이지만,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이 연금을 지급받을 때엔 20%대 초반까지 치솟게 된다. 이 비율이 공무원연금총당부채 중 실질적인 나랏빚이다.

작년 연금총당부채 78.6조 ↑ 보험료 수입으로 감당 안돼 지속가능한 연금 고민할 때

공무원연금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은 1988년 도입돼 2057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보다 28년 앞선 1960년 도입됐다. 2015년 개혁으로 정부보전금은 이전보다 줄었지만, 구조적 적자는 그대로다.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기존 퇴직자의 수급권이 보장돼서다. 국민이 퇴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는 구조다.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은 51%로 국민연금(30%)보다 높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도 여기에서 나온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기존 수급권자의 수급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공무원·국민연금 통합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구조를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보전금이 불필요한 수준까지 보험료 수입을 올리면 현재 가입자들의 수익비가 1배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고,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편한다고 해도 수십 년 뒤엔 국민연금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다.

윤석명한국보건의사회연구위원은 “이미 공무원연금 미가입자에 대해서 기초연금이라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고, 국민연금도 지금과 같은 구조로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재정당국이 의지를 갖고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의 현황과 문제를 투명하게 오픈하고, 고령화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100만 송이’ 장미의 향연

전국에 봄비가 내린 1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장미원을 찾은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장미를 보며 계절의 여왕 오월을 즐기고 있다. 100만 송이 장미를 감상할 수 있는 ‘에버랜드 장미축제’는 다음 달 16일까지 계속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KT 점유율 ‘족쇄’ 풀릴까

정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대신 사후규제안 국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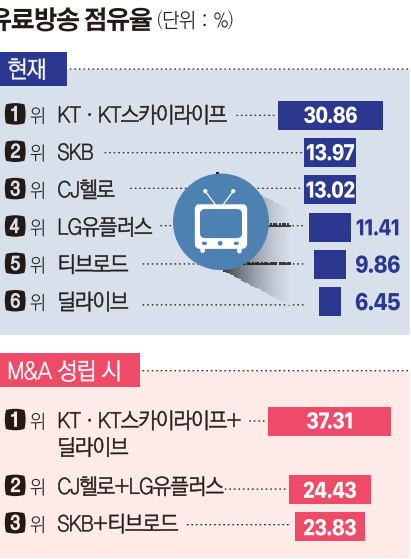
과기부·방통위 시각차 드러나
과방위, 내달 임시회의 열어 결정

정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운영 중인 합산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규제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가 정부 안을 수용해 합산규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KT 계열(KT+KT 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는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정책 진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유료방송시장 규제 개선 방안’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기부는 남아 있는 IPTV와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도 전부 폐지,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시장 전체 점유율을 33.3%로 제한하는 합산규제 외에 IPTV와 SO 사업자에 대한 개별 점유율 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기부는 점유율 쏠림 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강화 △이용요금·설비 제공 등 행위 규제 개선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집행 실효성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산규제 폐지 이후 규제개선 정책 방향이 과기부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시장집중사업자 규정’을 담은 사후규제안을 따로 만들었다. 과기부가 요금 신고제를 낸 것과 달리 방통위는 승인제를 유지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해 요금과 채널 구성 규제를 모두 두자는 의견이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조만간 국회에 방통위 의견에 대한 검토를 담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지난달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한 정부의 사후규제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과방위는 내달 임시회의를 열어 과기부와 방통위의 의견을 토대로 사후규제를 마련할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를 결정한다. 제출된 정부안이 국회 기대에 못미칠 경우 합산규제 폐지는 어려워진다.

국회가 정부 안을 수용해 합산규제를 되살리지 않는다면 KT의 딜라이브 인수 추진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점유율은 KT 계열이 30.86%로 1위다. 이어 SK브로드밴드(13.97%), CJ헬로(13.02%), LG유플러스(11.41%), 티브로드(9.86%), 딜라이브(6.45%) 순이다. 최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연달아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확정하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데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이슈 때문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인터넷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김범근 기자 nova@

5년새 25兆 늘어난 ‘부동산PF 대출’ 옥죄다

건전성 우려 금융사 실태점검…종합관리 시스템도 구축

금융당국이 5년 새 25조 원 규모로 급증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경우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부동산 PF 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관련기사 10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과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 금융권에서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13년 말 39조3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64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은행은 같은 기간 21조5000억 원에서 17조1000억 원으로 줄어든 반면, 비은행은 17조8000억 원에서 46조9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줄여온 반면 비은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잔액 추이

	2013년 말	2019년 말
은행	21조5000억 원	17조1000억 원
보험	5조6000억 원	22조4000억 원
여전	2조6000억 원	7조9000억 원
저축은행	2조1000억 원	5조2000억 원
상호금융	7000억 원	3조3000억 원

※출처: 금융위원회

행권은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손병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줄여온 반면,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저 규모를 늘려 왔다”며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의 완충력·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이나,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

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4년 말 9.4%에서 2018년 말 2.3%로 하향 추세다.

손 사무처장은 또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 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전성 규제 정비 △리스크 실태점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손 사무처장은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올해 1분기 규모가 59조8000억 원으로 2009년 말(8조3000억 원)에 비해 약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거래 상대방 신용 리스크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NTT도코모·KDDI 방문… 日서 5G 비즈니스

내년 일본 5G시대 개막 대비
네트워크 사업 협력 방안 논의
‘갤럭시 폰’ 점유율 반등 기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도쿄에서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도코모와 KDDI 본사를 방문해 5G(5세대 이동통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수 2년 차를 맞은 이 부회장의 행보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NTT도코모와 KDDI 경영진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2020년 일본 5G 시대 개막에 대비해 5G 조기 확산과 서비스 안착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NTT도코모, KDDI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5G 네트워크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성 갤럭시 하라주쿠 외관.

사진제공 삼성전자

일본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반등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3월 갤럭시 쇼케이스 중 최대 규모인 ‘갤럭시 하라주쿠’를 도쿄에 개관하고 일본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본



격화했다. 또 지난해 일본 NEC와 5G 네트워크 장비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를 계기로 5G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 중 ‘갤럭시 하라주쿠’를 직접 방문해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

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삼성전자는 무선통신 분야의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5G 서비스가 본격 적용되는 ‘2020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일본 출장은 올해 들어 이 부회장의 4번째 해외 일정이다. 지난해 초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이후 적극적인 글로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부회장은 2월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를 만났다. 3월에는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무케시 암바니 회장의 아들 결혼식을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특히 ‘총수 2년 차’를 맞은 이 부회장은 5G,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의 미래 사업 지도를 새로 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올해 첫 공식 사내 행사로 수원사업장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하는 등 5G 경쟁력 키우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I도 이 부회장이 지난해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이다. 지난해 3~4월 유럽과 북미 지역을 돌며 AI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에 ‘글로벌 AI 연구거점’을 잇따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올 들어 시스템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일찌감치 ‘포스트 메모리’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그는 “메모리에 이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확실한 1등을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엔 과거 ‘산업 전환기’마다 과감한 투자를 통해 단시간에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TV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1위로 ‘퀀텀 점프’를 했다”면서 “삼성엔 미래 사업 성패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美컨슈머리포트 “TV는 역시 LG·삼성”

최고 추천 제품에 ‘LG전자 올레드 TV·삼성전자 QLED TV’ 선정

LG전자와 삼성전자의 TV가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매체로부터 최고의 ‘4K 고화질 프리미엄 TV’로 선정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시중에 판매 중인 250여 종의 TV 모델을 대상으로 성능과 가격, 제품 신뢰성, 소비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천 제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LG전자의 55인치 올레드TV(모델명 LG OLED55CP9PUA)가 ‘최고의 TV(Best TV Overall)’로 꼽혔다.

이 모델은 화질 성능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이다이내믹 레인지(HDR·명암 최적화 기술) 구현에

서도 일본 소니의 올레드TV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컨슈머리포트는 보고서에서 “LG 55인치 올레드TV는 거의 무한대의 시야각을 자랑하고, 사운드도 조사 대상 모델 가운데 최고”라면서 “인공지능(AI) 플랫폼인 ‘싱큐’를 통한 음성명령 지원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레드TV 가운데서는 소니의 65인치 모델(XBR-65A9F)도 추천 명단에 올랐으나 LG전자 모델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레드TV 이외의 최고 TV(Best TVs That Aren’t OLEDs)’로는 삼성

전자의 65인치 QLED 스마트TV(QN65Q90R·QN65Q80R)가 선정됐다.

컨슈머리포트는 “최고 수준의 화질과 아주 효과적인 HDR 성능을 갖고 있으며, 사운드도 매우 훌륭하다”면서 “삼성의 AI 비서인 ‘빅스비’는 물론 구글홈, 아마존 알렉사 등과의 호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고의 대화면 TV(Best Super-Sized TV)’ 부문에서는 소니의 70인치 LED TV(XBR-70X830F)와 함께 LG전자의 70인치 초고화질(UHD) TV(70UK6570PUB)가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1000달러 이하의 보급형 모델



LG전자 모델들이 2019년형 LG 올레드 TV AI 싱큐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삼성전자 모델들이 삼성 ‘QLED 8K TV’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로는 중국 TCL의 65인치 TV(65R615·900달러)가 추천 리스트에 올랐다.

한편, LG전자 올레드TV와 삼성전자 QLED TV는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선정,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LG전자의 65인치 올레드TV(OLED65B8PUA)는 다른 경쟁 브랜드의 모델에 비해서는 다소 비싸지만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컨슈머리포트는 “탁월한 초고화질

(UHD) 화면에 우수한 HDR(명암 최적화 기술)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음질에 훌륭한 블랙 표현력, 사실상 무한대의 시야각을 자랑한다”고 추천했다.

삼성전자의 65인치 QLED TV(QN65Q65FN)는 화질, HDR 기능, 음질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삼성 스마트TV 플랫폼과 빅스비 음성명령 기능도 지원해 편의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바르게 딛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시작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번호

1644-0001

가스안전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월 38만원 ‘용돈연금’… 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국민연금 형평성 논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퇴직 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은 연금 수령액이 공무원보다 너무 적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가의 적자 보전·지급 보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역차별이란 불만이 가입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단연 연금 수령액 차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전체 수급자 41만9968명의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240만 원이었다.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 원을 받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69만 명의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38만 6000원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이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월 204만5550원으로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국에 9명뿐이다. 대부분은 용돈 수준이다.

최고액 수급자 월 205만원…

공무원연금 평균에도 못미쳐

정부 지급 보장 명문화 없어

2057년 기금 고갈 위기

공무원연금, 퇴직금 포함 형태

정년보장 따라 납입기간 길고

보험요율도 국민연금의 2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나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것도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다. 기획재정부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전년보다 94조 원 늘어난 939조9000억 원이다. 이 중 공무원연금이 754조 원, 군인연금이 186조 원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퇴직했거나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에게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출범	1988년	1960년
보험료율	9%(가입자 4.5%+사업자 4.5%)	18%(가입자 9%+정부 9%)
정부 지급보장·적자보전	X	O
2017년 기준 수급자 수	469만 명	41만9968명
2017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수령액	38만6000원	240만 원
지급시기	만 65세(1968년 이후 출생자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5세(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 재직기간 10년 이상)
기타 노후대책 및 복지	퇴직금·고용보험·노동3권	퇴직수당(민간기업 퇴직금보다 적음)·고용보험 미적용·노동3권 제한

정해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부족해지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기금 적자 시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에 쓰인 세금은 2017년에 3조 7000억 원이었고, 2018년엔 1000억 원 늘어난 3조8000억 원이었다.

반면 국민연금엔 안전장치가 없다. 공무

원연금처럼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 줄 의무도 없다.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혜택 차이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연금 수령액 격차 부분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에게 주지 않는 퇴직금

이 포함된 형태다. 또 국민연금보다 출범 시점이 30년 빨랐고, 정년 보장에 따라 오랜 기간 납입금(보험료)을 내야 하는 특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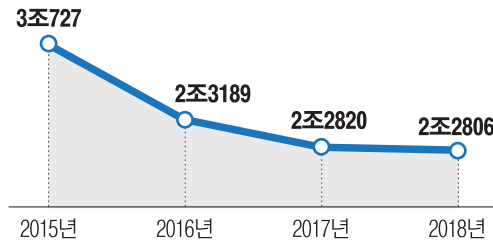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보다 내는 보험료가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민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매달 9%를 내지만 공무원은 본인이 9%를 낸다. 물론 정부도 9%를 부담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2015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이 개편됐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차이가 커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지급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지급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이 운영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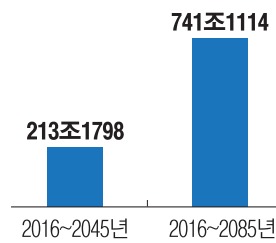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투입 현황

(단위: 억 원)



누계 정부보전금 예상치

(단위: 억 원, 2015년 불변가계)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日, 30년 논의 거쳐 통합…獨·핀란드 등 선진국도 개편

“공적연금 문제점 점검하고 알려 사회적 공감대 얻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국민연금보다 월평균 연금액이 6배나 많은 공무원연금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낮춰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 말에 특위 운영 시한이다. 개혁 방안을 어디까지 논의하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신생아 수가 1970년 100만 명에서 2017년 36만 명으로 줄어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 ‘폭탄 돌리기 땀질식 연금개혁’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1년만 해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간 정부보조금이 599억 원가량이었으나 2006년 6096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08년 1조 원을 넘었고 2015년에는 3조 원을 넘겼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의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5년 한 해 국고지원금은 10조7961억 원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

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은 30여 년의 연금개혁 논의 끝에 2015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했다. 어디에서 일하든 월급이 같은 노동자는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독일, 핀란드 등 선진국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비슷하게 개편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도 “당장 통합보다 현재 각각 제도의 재정 상태와 미래의 위험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저출산 저성장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노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국민들께 알리면 통합 논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은 제도 설계 문제라기보다는 합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모두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노후소득보장특위 등을 만들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사진 찍을 땐 환하게

“김치~”해야 하니까

김치만 떠올려도 행복해야 하니까

김치는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김치
종가집



수출기업 수익성 좋아졌지만... 과도하면 경쟁력 약화

이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다. 달러 기준으로 수출액이 전년보다 줄긴 했지만 달러 강세(원화 약세) 영향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수익을 의미하는 원화 표시 수출액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달러 강세는 우리 수출 기업엔 호재지만 과도한 달러 강세는 독(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월 수출액 전년比 2% 감소
원화 표시 수출액은 4.7% ↑

“美·中 무역분쟁·수출 부진
환율 1200원대 시간 문제”

원자재 수입·가공·수출 방식
결국 원가 올라 채산성 악화

◇원화 하락세 지속 =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488억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498억5000만 달러)보다 2.0% 줄었다. 해당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한 수출액은 55조7000억 원으로 전년(53조2000억 원)보다 4.7% 증가했다.

달러 표시 수출액이 줄었음에도 원화 표시 수출액이 늘어난 것은 달러 강세 때문이다. 1달러당 1100원(한 달 평균)을 넘어선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올해 4월까지 원·달러 환율은 1120~1140원대였다. 특히 지난달에는 2017년 2월(1144.9원) 이후 가장 많은 1141.0원을 찍었다. 현재는 12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17일 종가 기준 1195.7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2.3% 상승했다.

달러 강세의 원인은 작년 하반기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둔화로 안전 자산인 달러 매입이 확대되면서 시중에 원화가 많아진 탓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해 달러 수입이 줄어든 것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올해 1~4월 누적 수출액은 1816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 줄었다.

외환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미·중이 상호 보복조치를 높여가는 단계라 머지않아 1200원대 도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내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GDP 둔화, 유가 상승 등도 원화 약세 요인이라 1210원 부근까지 원·달러 환율 상단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한다.

◇수출 전망은 =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 수출 기업은 환차익을 누리 수익성이 좋아진다. 교역상대국은 한국산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이 환차익으로 수출 제품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여력(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러 강세가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우리 수출 기업에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원유 등 원자재를 수입해 이를 가공해 만든 중간재,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로 달러 강세 확대 시 원자재 수입 가격이 크게 올라 우리 수출 기업의 채산성(수입과 지출 등의 손익을 따져서 이익이 나는 정도)이 악화될 수 있다. 가파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 제품의 원가를 끌어 올려 수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선임연구원은 “과거에 비해 환율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줄긴 했지만 과도한 달러 강세는 우리 기업의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가파른 달러 강세를 해소하기 위해선 달러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수출 제도가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 자본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한 달 평균)



원화 표시 수출액 추이
(단위: 조 원)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美경제 호황에 달러 독주... 상대국 통화 ‘악소리’

세계 각국 환율 방어에 안간힘... 中 ‘달러당 7위안’ 마지노선 시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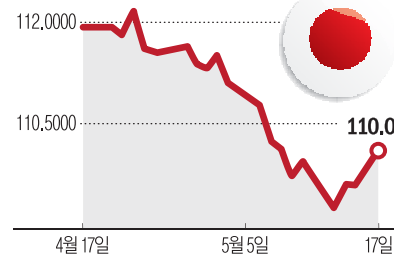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연내 금리 인상 보류 신호를 보냈음에도 달러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더해져 달러에 계속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다른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거센 하방 압력에 직면하면서 각국이 환율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1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WSJ달러지수는 17일(현지시간) 전 거래일 대비 0.3% 상승한 91.26으로 2017년 3월 이후 2년여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8%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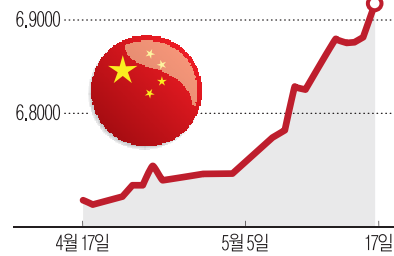
이날 달러는 5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1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데 영향을 받았다. 미시간대는 5월 소비자신뢰지수 예비치가 102.4로 4월의 97.2보다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뉴욕라이프인베스트먼트 산하 인덱스IQ의 살 브루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은 성장에 있어서 최대의 희망”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긴장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달러·엔 환율 추이
(단위: 엔)



달러·위안 환율 추이
(단위: 위안)



도 투자자들이 달러를 편식하는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주 유로는 달러에 대해 0.7% 하락했고, 파운드는 2.3% 빠졌다. 일본 엔화도 달러당 110.10엔으로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중국 위안화 추이다. 미·중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시장 개입의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달러당 7위안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1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거래 기준 환율을 6.8859 위안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같은날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지며 한때 5개월여만의 최저치인 달러당 6.9170위안까지 주저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밝힌 5일 이후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 2.7%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중국 당국을 시험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우려했다.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에 도달해 당국이 개입하면 수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미·중 통화전쟁이 촉발될 수 있어서다. CNBC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에 도달하면 중국의 결단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는 또다른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고배 풀린 환율... “자본 유출 우려” vs “과민반응 경계” ▶19면



놀이로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www.childfund.or.kr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7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동차 부품·전자·석유화학·항공〉

4대 산업 중심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 추진

이르면 이달 R&D 로드맵 발표
IoT·빅데이터 등 적용 생산성 ↑
2025년까지 5000억 투입 계획
섬유·조선업 등으로 확대 검토

정부가 자동차 부품, 전자, 석유화학, 항공 등 4대 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스마트제조 R&D 로드맵’을 발표한다. 스마트 제조는 제조업 생산 체계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문재인정부는 스마트 제조를 혁신 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R&D 로드맵에는 이를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이 담겨 있다. 현재 선도국의 70% 수준에 불과한 한국 스마트 제조 산업의 기술력을 2025년까지 90%대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 부품과 전자, 석유화학, 항공 등 4대 산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파급력이 큰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기술을 개발한 뒤 다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汎用) 기술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섬유

와 조선업 등을 집중 개발 분야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대 산업 가운데 자동차 부품, 전자, 석유화학 산업은 한국의 주력산업일 뿐 아니라 신흥국과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스마트 제조 기술을 통해 이들 산업에서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벌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로드맵은 이를 위해 AI 기반 설비·협업 로봇·5G 기반 공정 제어기술 개발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항공 산업은 주력 산업은 아니지만 신산업 선점을 위해 중점 개발 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항공 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검사 시스템, 인간-로봇 협업 작업증강시스템 등을 개발키로 했다.

다만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고려하면 로드맵 이행이 쉽지만은 않다.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 제조 기술 수준은 주요 6개국 중 5위에 그쳤다. 특히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연계·지원하는 기술)과 컴퓨터지원기술(CAx·제품 제조 공정에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 수준은 선도국인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경철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스마트 제조가 활성화하려면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가벼운 솔루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실업률 최악인데… “고용 개선됐다”는 靑

4월 실업률 4.4%로 19년 만에 최고… 정태호 “일자리 증가 수 획기적”

지난달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19일 최근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과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이 전체 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호〈사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으며,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었는데,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여 명, 3월 25만여 명, 4



월 17만여명”이라며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만~15만 명이었는데 지금 수치는 그 예측도 뛰어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률 면에서도 2018년 하반기 마이너스(-)0.3~~0.1%였는데, 올해 들어 2월 이후 -0.1%와 1% 사이에 걸쳐 있다”며 “고용률 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설법인 수와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수도 작년 하반기 후 평균

15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수석은 “우선 공공분야 일자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의 이 같은 입장은 일자리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실업률은 4.4%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증가는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단기 노인·청년 일자리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중추인 30, 40대 고용은 1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제조업 고용도 12개월 연속 감소한 상황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어색한 만남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악수를 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 이번 주가 고비

오늘 3당 원내대표 ‘호프 회동’ … 추경안 처리 등 주목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호프 타임’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 지도부 선출이 모두 마무리된 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조기 정상화라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이견이 심해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이 참여하는 대표회담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기 개최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이 단독회담과 ‘교섭 단체 3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추경을 반드시 이달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강행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절차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취하 등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복귀 명분을 줘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는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대한 사과를, 한국당에는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상화가 늦춰질수록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더 이상 밖에서 돌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떳떳하게 국회로 들어와서 말하라”고 압박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현정 기자 jhj@



롯데칠성음료

시대도 커피도 바뀌었다

WORK
LIFE
BALANCE



위라벨을 살리는
빅사이즈 커피

500ml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경기 어려운 상황, 단기 확장 재정정책이 바람직”

전문가, 고용·사회안전망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 재정 투입 공감
“국민 체감할 수 있게 예산 제대로 집행을… 장기적으로 신중해야”
10년간 채무비율 30%대 유지 기재부, 40%가 심리적 마지노선

내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의견이 갈린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면 서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문 대통령은 “미국은 107%, 일본은 220%, OECD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나”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2009년 이후 10년간 30%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해왔던 점에서 40%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504조6000억 원까지 늘지만 총수입(504조1000억 원)이 이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된다. 부족한 수입은 적자국채 등으로 메워지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40.3%로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재부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마지노선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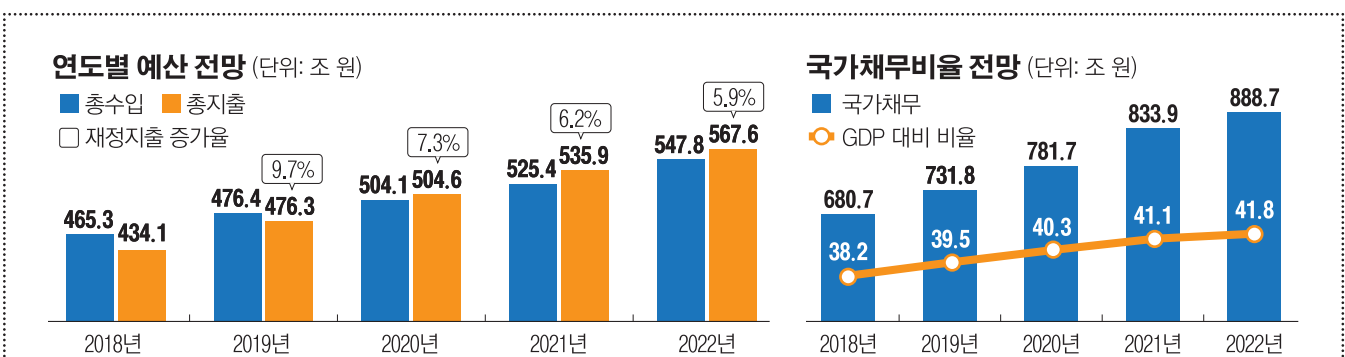
국제 데이터를 비교하면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상당히 낮다”며 “2014년 무디스(Moody’s)가 재정여력지수를 국가 간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비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재정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양극화·불평등 악화, 가계부채 증가, 고용 없는 성장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최근 경기도 어렵다”며 “정부는 최근 초과세수 발생에도 긴축재정을 유지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구조개혁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나치게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선 재정지출을 확대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중요한 건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그 수치에 얽매어는 게 아니라, 다소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더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장기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권준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내년 예산 첫 ‘500조’ 넘는다

연평균 7.3%씩 지출 늘리기로
‘총지출>총수입’ 적자예산 불가피

정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가 5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단 세수 증가세 둔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연평균 7.3%씩 지출을 늘린다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추가경정예

산안 편성으로 예산이 476조3000억 원까지 불어 증가율이 5%만 돼도 내년 예산은 500조 원을 넘는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였다. 올해엔 9.7%, 내년 7.3%, 2021년 6.2%, 2022년 5.9% 증가가 계획돼 있다.

다만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아지는 적자예산이 우려된다.

지난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

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총지출은 예산안 대비 6조7000억 원 늘지만, 총수입은 476조4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8000억 원이 줄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당장 올해부터 적자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계획상으로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도 골칫거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서울 휘발윳값 1600원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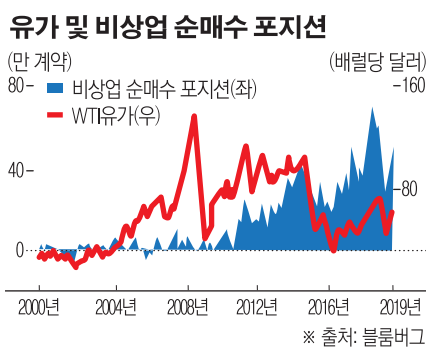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뒤 기름값이 가파르게 올라 지난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00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자동차에 주유하고 있는 모습. 이날 오후녘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29.2원 오른 1525.5원으로 나타났다.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이 1500원을 돌파한 것은 2018년 11월 넷째 주 1516.3원 이후 5개월 3주 만이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당 26.0원 상승한 1613.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신태현 기자 holijjak@

한은 “유가 선물시장, 위험 헤지는커녕 변동성 확대”

금융위기 후 ‘웍더독 현상’ 심화
중장기 예측치 상당부분 불일치

유가 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유가 선물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되레 유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선물가격이 현물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웍더독(wag-the-dog) 현상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유가 선물시장의 현황 및 유가와 관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 들어 유가 선물시장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이하 포지션)과 유가 간 동행성이 뚜렷해졌다.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2010년대 들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데 이어,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최근 3년간 상관계수도 0.555를 기록했다. 이는



그 이전기간(2010년 1월~2016년 2월 0.278)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상관계수값이 0.5라는 것은 포지션이 1 변동할 때 유가가 0.5씩 움직인다는 의미다. 아울러 포지션 증감과 유가 상승·하락 전환시점이 거의 일치했고, 3차례 유가 상승기와 2차례 유가 하락기 평균 유가변화(각각 28.0달러 상승, 49.7달러 하락)와 포지션 증감(각각 31만2000계약 증가, 25만3000계약 감소) 등 변동폭도 상당부

분 유사했다. 이에 따라 원유 선물시장의 기간구조가 미래 유가흐름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 유효성도 중장기와 단기시계에서 상이했다. 우선 중장기시계에서는 선물시장의 기간구조(1년물~1월물)가 의미하는 이론상 유가 예측치와 유가 흐름이 상당기간 일치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4년 중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아 향후 유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백유펜데이션(저평)이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뒤이어 2015년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아 향후 유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콘탱고(고평)가 나타났음에도 유가는 되레 떨어졌다.

반면, 고평과 저평이 통상적 변동 수준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경우 유가는 1~2개월 경과 후 상승전환하거나 하락했다.

김남현 자본시장 전문기자 kimnh21c@

중대 재해 시 추가 대형사고 높은 경우만 ‘작업중지’

고용부 ‘작업중지 요건 및 범위’ 마련

중대 재해 발생 시 주변의 대형사고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한다.

또 사업장이 작업 재개를 위해 해제 신청을 하려면 재해 발생 현장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와 중지 해지 기준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20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를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린다고 19일 밝혔다.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 요건과 범위 및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작업중지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해 운영 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뒤 신청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이랜드에 과징금

납품업체에 아웃렛 판촉행사비용을 부담하게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이랜드리테일이 과징금 철폐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2001아울렛, 뉴코아아울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등 대형 아울렛(48개)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체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의무 진열대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 원을 납품업체에 부담토록 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해외에서도 데이터 로밍을 원하는 대로!

KT 5G 슈퍼플랜으로
해외 185개국에서도 데이터 사용을 마음껏 즐기세요

* 베이직/스페셜 최대 100Kbps, 프리미엄 최대 3Mbps 속도



국내에선 5G데이터가 기간 제한 없이 완전 무제한
해외에선 데이터 로밍을 원하는대로

kt 5G 슈퍼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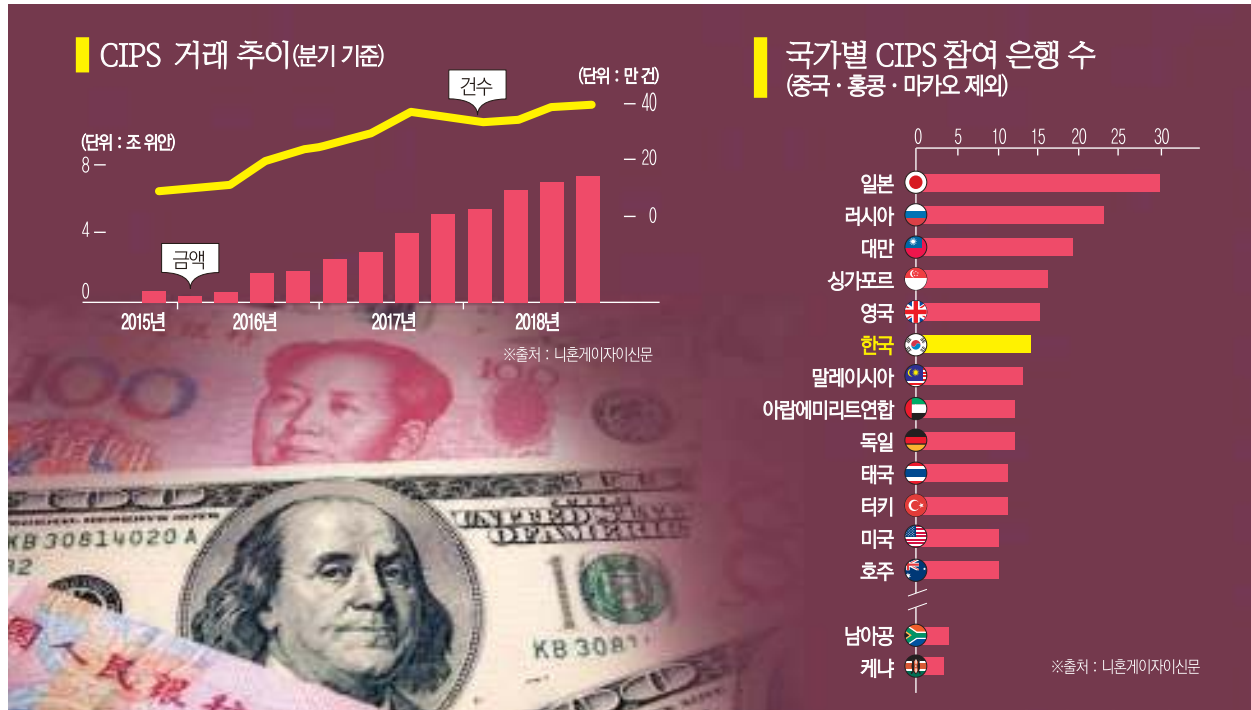
【 베이직 / 스페셜 요금제 】

해외 톡/메신저 무제한
국내 완전무제한

【 프리미엄 요금제 】

해외 무제한
국내 완전무제한

당신의 초능력 **kt 5G**



中, 위안화 영토 확장 ‘달러 패권’ 위협 거세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노리는 중국의 독자 국제결제시스템 ‘위안화 국제은행 간 결제시스템(Cross-Border Inter-Bank Payments System, CIPS)’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0월 출범 후 참여 은행이 급속도로 늘어 현재 89개국 865개 은행이 CIPS를 이용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대외 경쟁 노선을 역이용해 기축 통화인 달러 패권에 본격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국제 결제는 뱅크에 분사를 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 시스템이 주류다. SWIFT에서 하루에 결제되는 금액은 5조~6조 달러(약 5977조~7173조 원)로 사실상 국제표준이다. 이 가운데 40%가 달러 결제로, SWIFT가 달러 패권을 지지하는 형국이다. 이 중 석유 등 상품 거래 결제가 압도적이다.

이에 대항해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15년 10월 CIPS를 출범시켰다. CIPS는 영문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마다 즉시 결제 시스템을 채용해 위안화 결제 범위를 넓혔다. 이 시스템에 계좌를 가진 ‘직접참여은행’과 직접은행을 매개로 연결되는 ‘간접참여은행’으로 구성, 어느 쪽이든 거래하면 중국

2015년 10월 출범한 ‘中 CIPS’ 현재 89개국 865개 은행 포함
美 제재 대상 러·터키도 참여
中 ‘일대일로’ 영향 위상 커져
‘脫달러’ 움직임도 점차 거세

기업 계좌로 간단하게 송금할 수 있다. 신문은 CIPS 보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CIPS 참여 금융기관 수를 지역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위안화 결제가 물밑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금액 기준뿐만 아니라 거래건수에서도 상당한 수치가 나왔다. 신문에 따르면 2018년은 144건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2019년 4월 시점에서는 중국계를 포함해 전 세계 865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눈에 띈 건 미국의 제재 대상국도 CIP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러시아는 2018년 12월 모스크바신용은행이 가입하면서 총 23개 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대금 결제에 위안화를 이용하는 비율은 2014년 9%에서 2017년은 15%로 상승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8년 9월 시점에 외환

보유액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을 14%로, 2017년 9월의 1%에서 대폭 늘렸다. 달러 비율은 46%에서 23%로 낮아졌다.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터키도 11개 은행이 CIPS를 이용했다. 영국 자산운용사 찰스스탠리의 게리 화이트는 “미국에 달러 이용을 제한당하면 우회 수단을 찾아야 한다”며 “CIPS가 그 대안으로서 한층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CIPS의 위상이 높아진 이유로 중국이 광역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나라가 늘어날수록 위안화 결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다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달러 이탈’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령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결제 일부를 위안화로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신문은 미국이 ‘협박 외교’를 강화할수록 스스로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트럼프 ‘화웨이 금수조치’에

런정페이 “美 반도체 없어도 돼 핵심부품 자체 개발 준비됐다”

〈中 화웨이 회장〉

美 전면봉쇄 조치後 처음 입 열어
규제대상 모호 전세계 기업 혼란

“미국 반도체 팔지 않아도 된다. 핵심 부품 자체 개발하겠다.”

런정페이 화웨이테크놀로지 회장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면 봉쇄 조치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런 회장은 18일 중국 광둥성 선전 본사에서 가진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를 결정한 데 대해 “우리는 법에 저촉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인터뷰에는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니혼게이지아신문 등 일본 언론들만 참석했다.

런 회장은 스마트폰 등의 생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 “(퀄컴 등 미국 기업이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품을 팔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에 대한 준비는 이전부터 진행해왔다”며 화웨이 산하 반도체 설계회사인 하이실리콘을 통한 독자 개발을 시사했다. 수출 규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화웨이의 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거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ZTE처럼 미국의 요구에 따라 경영진을 쇄신하거나 감시를 받아들이는 일 등은 하지 않겠다”고 미국 정부에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화웨이는 전 세계에서 연간 약 670억 달러(약 80조 원)여치의 부품을 조달해왔다. 이 가운데 미국에서만 약 110억 달러여치를 구입했다. 특히 핵심 부품인 반도체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다. 퀄컴



중국 광둥성 선전 본사에서 일본 언론들과 인터뷰하는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 니혼게이지아신문

과 인텔, 브로드컴 등 반도체 대기업 외에 마이크로소프트와오라클 등 소프트웨어대기업들이 화웨이의 주요 공급처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안보 우려가 있는 기업에서의통신장비 조달을 금지하고, 미국 기업의 화웨이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모두 봉쇄됐다. 이에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통신사용 통신장비 생산에 향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런 회장은 “오늘은 한 나라를 위협하고, 다음은 다른 나라를 협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국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무릅쓰겠는가”라며 다른 나라를 무차별적으로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5G 정비 분야에서(진출을) 요청해도 갈 생각이 없다. 기업의 투자에 중요한 것은 신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따른 혼란은 화웨이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발표되면서 사안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던 데다 규제 대상 제품 범위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외국인의 거래도 처벌받기 때문에 기업들은 화웨이와의 거래를 아예 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경 기자 sue6870@

美, 수입차 관세폭탄 6개월 유예
도요타 “600억 달러 투자...
안보 위협하고 있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를 국가 안보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작심하고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생활 양식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수입 자동차 및 수입 부품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검토해온 미국 행정부는 이날 관세 부과에 대한 180일 간의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도요타는 “트럼프 행정부는 도요타에 우리의 투자가 환영받지 못하며, 미국 전역에 있는 도요타 직원들의 기여가 가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도요타는 “도요타는 60년 전 미국에 뿌리 내렸다”며 “미국에서 10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600억 달러(약 71조7300억 원)를 투자했고 47만5000명을 직간접 고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요타는 약 두 달 전에도 미국에 대한 30억 달러(약 3조5865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eulkee@



트럼프와 ‘골프 회동’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일본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의 한 골프장에서 마쓰자키 이사오 모리나가상사 사장 등 기업인들과 골프를 즐기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일주일 뒤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앞두고 연습라운딩을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18홀 코스를 돌며 ‘골프 외교’를 펼쳤다. 지가사키/니혼게이지아신문

아마존, 英 음식배달업체에 대규모 투자
딜리버루 5억7500만 달러 조달
우버이츠 등 경쟁업체 초긴장

아마존이 영국의 음식배달업체 ‘딜리버루’에 대규모 투자를 하며 음식배달 서비스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다. ‘우버이츠(Uber Eats)’와 ‘저스트잇(Just Eat)’ 등 경쟁업체들과의 대결이 격화할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음식배달 스타트업인 딜리버루는 5억75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금 조달에 아마존이 최대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마존의 정확한 투자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더그 거 아마존 영국 대표는 “딜리버루의 제안에 감명받았다”며 “그들이 이후 어떤 일을 할지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3년 런던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딜리

버루는 8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루는 가맹 식당로부터 10~20%의 배달수수료를 떼는 한편 고객들로부터는 3파운드(약 4500 원)의 배달료를 받는다. 미국의 투자 자문사인 윌리엄 블레어는 2020년께 딜리버루의 시장점유율은 10%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우버가 인수를 검토했다.

아마존도 당초 딜리버루 인수를 검토했으나 투자로 방향을 바꿨다. 아마존은 지난 2016년에는 자체 음식 배달 서비스인 ‘아마존 레스토랑’을 영국에서 설립했다가 2년 만인 지난해 말 철수한 바 있다.

WSJ는 “음식배달 서비스는 지금까지는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다”며 “배달 직원 고

용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음식점 측에서도 배달 수수료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딜리버루는 2017년 매출 2억7700만 파운드를 기록했으나 글로벌 확장에 따른 투자 등으로 1억8500만 파운드의 순손실을 봤다.

한편 아마존이 딜리버루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경쟁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저스트잇이 9% 떨어지 하락폭이 가장 컸고,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Delievery Hero)가 4.7% 하락했다. 그럽Hub(Grubhub)과 우버도 각각 1.8%와 2.5%씩 빠졌다. 이슬기 기자 seulkee@

터치 한 번이면 대출... 일상을 바꾸는 ‘손 안의 은행’

약진하는 ‘챌린저 बैं크’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일부러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가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은행의 형태도 변신 중이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사업을 하는 디지털 은행이 대표적이다. 주머니 속 모바일 기기 하나로 돈을 빌리고 갚고, 또 각종 물건을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고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세대를 위한 ‘챌린저 बैं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챌린저 बैं크는 기존 대형은행의 지배적인 시장 영향력에 도전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을 뜻한다. 일찌감치 이 흐름에 올라탄 건 영국이다. 영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네오뱅크’를 보유하고 있다. 네오뱅크는 오프라인 매장 없이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2005년 이후 15곳의 네오뱅크가 운영 허가를 받았다. 이들 은행에서 영국 은행권 신규 매출의 3분의 1이 나온다. 네오뱅크의 고객 수와 예금 보유량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젊은층의 진입이 두드러진다. 네오뱅크 계좌를 가진 영국 성인이 9%인 반면, 18~23세의 젊은 세대는 15%가 네오뱅크 계좌를 개설했다. 영국의 대표적인 네오뱅크인 몬조는 영국에서만 계좌 수가 160만 개에 달하고 매주 3만 개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네오뱅크인 N26은 2015년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유럽 24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후발주자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이스라엘의 첫 모바일 बैं크인 펍퍼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지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오로지 모바일 앱으로만 운영이 되는 데 페이스북의 ‘피드(Feed)’처럼 자금 관리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과 ‘펍퍼페이’라는 송금 기능을 갖고 있다.

영국, ‘네오뱅크’ 세계 최다 보유 18~23세 인구 15%가 계좌 개설

이스라엘 첫 모바일뱅크 ‘펍퍼’ 자금관리·송금 앱으로 운영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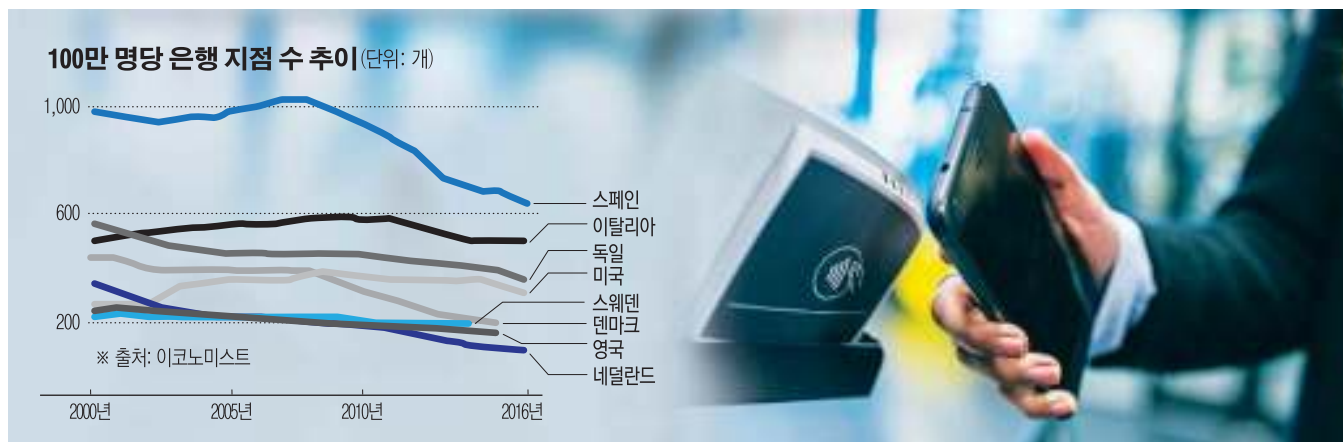
중국 디지털 은행 출현으로

개인 대출 더 쉽고 다양해져

펍퍼는 총 고객의 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수만 명이 넘고 신규 고객 증가 속도는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은행보다도 빠르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밝혔다.

기존 은행에 도전하는 이른바 ‘챌린저 은행’들의 발빠른 시장 장악은 기술 발전과 함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 은행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 명성에 기대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늘려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에 나섰다. 2016년 소매금융시장에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오픈뱅크 규칙을 도입했다. 은행이 제3자에게 계좌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소규모 특화은행의 진입 자본을 500만 유로(약 68억 원)에서 100만 유로로 낮춰 시장 진출을 촉진했다. 2016년에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했다. 1년에 두 번, 새 상품에 대한 신규 고객 등록이 가능한 데 잘못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챌린저 은행들만이 가진 경쟁력도 성장세에 한몫했다. 은행들이 지점을 운영하느라 드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적은 수수료, 경쟁력 있는 금리 및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출 업무에

서 외환 거래, 전자화폐 거래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은행 출현으로 삶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은행 덕분에 개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기존 은행들은 주로 기업을 상대로 대출 업무를 진행해 왔다. 또한 중산층의 소비 증가도 가파르다. 티켓 예매, 택시 호출, 전기세 납부, 음식 주문 등 생활 구석구석까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 번 거래를 트면 잘 이동하지 않는 특성상, 지점 고객의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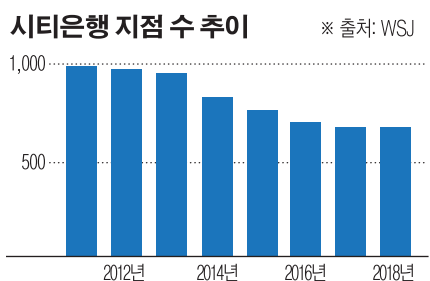
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은행을 이동한 미국인이 8%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 만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 경험에 전무해서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마치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택시에 만족했지만 이제는 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아시아 지역에 비해 전파 속도가 느린 미국 등에서도 디지털 은행의 일상화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김서영 기자 0jung2@

디지털 전환 고삐 쥔 은행권

DBS, 인도·인니 젊은층 겨냥 ‘디지털뱅크’로 290만 고객 유치

UOB, AI 활용 이용습관 분석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박차



를 출시했다. 작년에는 인도네시아로 진출했고 현재 두 나라에서만 290만 고객을 확보했다.

전통 은행들은 기술 이용에도 적극 나섰다. 싱가포르에서 3위 은행인 UOB는 고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들의 은행 이용 습관을 분석한다.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판촉 및 광고도 늘렸다.

미국의 금융서비스회사인 씨티그룹도 ‘디지털 बैं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 결과 1분기에 디지털 예금을 약 10억 달러 추가했다. 약 3분의 2가 신규 고객에서 나왔고 절반 이상은 씨티그룹의 700개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사람들로부터 확보한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씨티그룹은 1분기에 모바일을 통한 고객이 1년 전보다 12% 증가한 11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씨티그룹뿐만 아니라 JP모건체이스,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등 전통 강자들도 지점 고객이 아닌 사람들을 타깃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모바일 생태계가 낳은 신흥 강자들과 함께 시대 변화에 올라 타려는 전통 강자들의 노력이 금융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아이의 미래, 더 밝아야 하니까 희망 가득 드릴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의 희망을 지켜주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KB손해보험은 생각합니다
자녀보험이 든든해야
아이들의 내일도 더 밝아진다고 -

희망 가득한 보험
KB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2126호 (2019.01.07)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계약한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KB 손해보험

‘저축銀 사태’ 재연?... 보험 부동산PF 대출 4배 급증

금융위,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 발표

최근 5년간 보험·증권사를 중심으로 부동산PF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PF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근원이었던 만큼, 부실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은 2013년 이후 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커졌다. 실제로 부동산PF 대출잔액에서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말 45.3%에서 2018년 말 73.3%까지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보험업계는 같은 기간 5조 6000억 원에서 22조 4000억 원으로 4배가량 높아졌다. 여전사의 경우 2조 6000억 원에서 7조 9000억 원으로, 저축은행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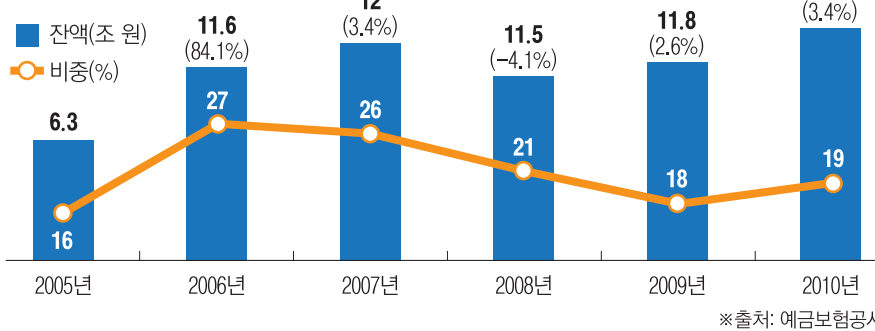
은행 대출잔액 4.4兆 줄었지만 비은행권 비중 5년새 28%p 확대

금융당국,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 상시 모니터링·모범 기준 도입

조 1000억 원에서 5조 2000억 원으로, 상호금융은 7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은행권은 대출잔액이 같은 기간 21조 5000억 원에서 17조 1000억 원으로 줄었다. 또 다른 익스포저 유형인 PF 채무보증에서는 증권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부동산PF 채무보증의 93%가량(24조 1000억 원)을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부동산 PF 대출잔액

*괄호 안은 증가율



업계에서는 이 같은 비은행권에서의 부동산PF 대출 급증이 2011년 저축은행 연쇄 영업정지 사태와 같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무분별하게 부동산PF 투자를 해왔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었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 16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기에 이른다. 실제로 저축

은행 부동산PF 대출 잔액의 경우 2005년 6조 원 규모에서 2010년 12조 원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은행권은 은행보다 유동성과 자본력이 낮다”며 “시장 여건이 변화하면 여러 PF 사업장들의 사업성이 영향을 받아 PF대출의 건전성이 한 번에 바뀔 가능

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 정비 △부동산PF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부동산PF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채무보증에 따른 잠재적 유동성 리스크를 감안해 적정 관리기준도 도입한다. 보험사, 여전사 등 ‘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는 모범규준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은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해 부동산PF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가계·기업·금융투자 부문 부동산금융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주요 지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위험 분석을 실시한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메리츠화재, 치매보험 약관 ‘바꾸나마나’

‘이상소견’ 부분 삭제했지만... 금감원 “보험금 지급 기준 여전히 모호”

메리츠화재가 이달부터 치매보험 약관에서 ‘이상소견’ 부분을 삭제했다.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인데, 당국은 변경된 약관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예정대로 내달 말 치매보험 약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달부터 경증치매 보험 약관에서 “경증 이상 치매 상태의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CT, MRI, 뇌파 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에 ‘이상소견’” 부분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로 변경했다. 보험금 지급기준 약관이 모호하다는 당국의 지적이 있자 다소 완화된 지급 기준으로 수정한 것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이미 치매보험 약관에 ‘기초로 하여야 하며’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당국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경증치매는 CT·MRI 이상소견이 희박한데 약관에는 이상소견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적시돼 있는 등 지급기준이 모호해 정작 ‘치매 보장’이 안 되는 치매보험이라는 논란이 나왔다.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 자료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 약관상 치매 진단 시 뇌 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 분쟁

소지가 존재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의 후속 조치에도 당국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보험감리국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를 포함한 다른 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돼 있는 ‘기초로 하여’ 부분은 여전히 모호한 약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상소견이 없어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약관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예정대로 감리를 통해 약관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기는 6월 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뇌 영상검사에 기초하여’라는 문구를 아예 빼는 쪽으로 약관 변경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기업 PR>

동양생명 ‘수호천사플러스건강보험’ 인기몰이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無

동양생명은 다양한 질병을 폭넓게 보장하는 동양생명 ‘(무)수호천사플러스건강보험(무해지환급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재해 사망을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환 진단비 및 각종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등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계약으로는 재해로 인한 사망시 1000만 원의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 ‘(무)플러스의료보장특약(무해지환급형)’에 가입해 암으로 진단 확정시 1000만 원의 암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5종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경우 1회당 1종 300만 원에서부터 5종 20만 원까지 수술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장기이식수술(1000만



사진제공 동양생명

원), 조혈모이식수술(500만 원), 통풍치료비(50만 원), 대상포진치료비(100만 원), 대상포진농병치료비(100만 원)도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는 등 특약 하나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구성했다.

이 상품은 1형(무해지환급형)과 2형(순수보장형)으로 구성됐다. 가입가능 나이는 만15세부터 최대 60세까지이며 보험료 인상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3대 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거나 50% 이상 장해시 납입 면제된다.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기업용 ERP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 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는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선물 NH농협카드



2018년 농가소득 4,207만원 달성!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위해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모비스 연구비 늘었다지만...글로벌 경쟁엔 역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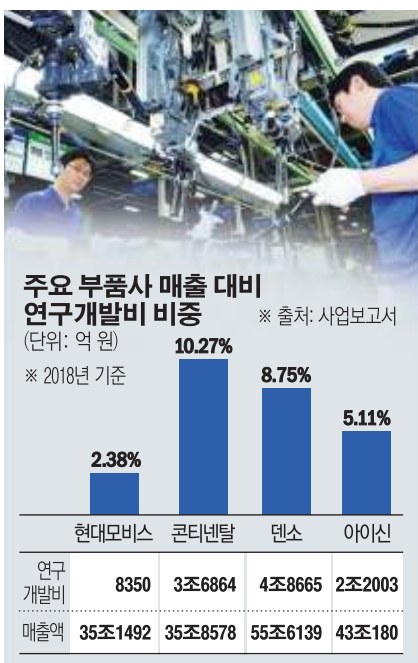
지난해 매출의 2.4% R&D 투자
日 아이신 5%·獨 콘티넨탈 10%
공들인 수소연료전지 매출 낮아
재투자 한계...정부 지원 반토막

국내 대표 완성차 부품기업인 현대모비스의 연구개발비(R&D) 비율이 해외 경쟁사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연구개발 폭이 제한적이고, 수소연료전지 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이 아직 뚜렷한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부품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 완성차 부품사들의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대표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는 매출의 3% 남짓만 R&D에 투자했다.

독일 콘티넨탈은 지난해 매출 268억 유로를 기록했는데 R&D에 27억6100만 유로를 쏟아부었다. 매출액 10.3%에 달하는 규모다.

토요타에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 덴소 역



시 5조1082억 엔의 매출 가운데 8.75%에 달하는 4470억 엔을 R&D에 썼다. 일본 아이신도 매출 4조431억 엔의 5.1% 수준인 2021억 엔을 R&D에 재투자했다.

반면 모비스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38% 수준에 그쳤다. 지

난해 기준 35조1492억 원의 매출 중에 R&D 투자는 8350억 원에 머물렀다.

다만, 모비스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 1.82%, 2017년 2.18%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매출 집계 때 AS사업 등이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R&D 투자 규모가 낮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S사업 부문과 모듈조립 부문 매출을 제외해야 실질적 R&D 투자 규모를 뽑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대모비스 전체 매출에서 AS부문과 모듈조립 부문을 제외한 매출액은 9조3252억 원 정도다. 여기에서 연구개발비 비율을 구하면 8.94%라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일부 해외 부품사도 기타 사업 부문을 포함해 연구개발비를 산출하고 있다. 일본 덴소 매출에는 비자동차 부문을 포함해 덴소 농업부문 매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품은 물론 타이어도 팔고 있는 독일 콘티넨탈은 매출 4분의 1을 차지하는 타이어 부문을 별도로 구분해 연구개발비를 산정한다. 콘티넨탈의 연구개발비 10.3%는 자동차 부문에 한정해 계산한 수치다.

현대모비스가 해외 부품사에 비해 낮은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이는 이유는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연료전지 스택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여전히 이 부분이 실질적인 매출로 되돌아오지 못한 탓에 공격적인 재투자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핵심기술 지원 분위기도 사그라들었다.

정부는 매년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편성한 R&D 예산을 기업과 정부기관에 지원한다. 지난해 정부는 약 19조7000억 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R&D 예산은 올해 20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5년 이후 감소세다. 정부 총예산에서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0%였는데 2016년 4.9%에 이어 2018년에는 4.6%로 감소했다. 기업 부문의 R&D 투자 대비 정부지원 비중은 2012년 12.27%에서 2016년 8.35%로 감소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현대모비스가 받는 정부보조금도 반 토막 났다. 현대모비스는 2016년 10억 원 정도를 정부보조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보조금은 지난해 4억 원으로 줄었다. 불과 2년 만에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반 토막 난 셈이다.

모비스 R&D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 분위기가 이전보다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 기업 부문의 R&D 투자 대비 정부지원 비중이 8.35% 수준이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28.71%, 23.47%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 R&D 예산의 중소기업 할당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연구비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모비스는 미래차 기술 선도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2021년까지 전체 연구개발비를 부품 매출 대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중 50%를 자율주행 등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청사진도 내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유창욱 수습기자 woogi@

LG 가전 생산라인 1분기 풀가동

에어컨 공장 가동률 137% 등
사계절 전략으로 연초 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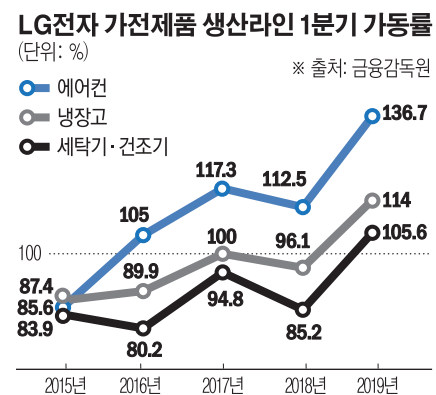
LG전자 생활가전 전체 생산라인이 1분기부터 풀가동됐다. 이는 다양한 수요 확보 전략을 펼친 결과로 가전 비수기인 1분기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전체 생산라인 가동률이 모두 100%를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19일 LG전자가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생활가전 생산라인의 1분기 가동률은 최근 5년(2015~20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에어컨은 무려 136.7%를 기록했고, 냉장고와 세탁기·건조기는 각각 114%, 105.6%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LG 에어컨은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275만 대가 생산됐다. 냉장고와 세탁기·건조기는 각각 7%, 20%씩 오른 257만 대, 349만 대가 만들어졌다.

LG 생활가전 생산라인이 처음으로 풀가동된 것은 제품에 대한 고객 맞춤형 전략에 힘입어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에어컨은 공기 청정 기능이 적용되는 등 과거와 달리 사계절 가전으로 거듭나면서 일찌감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었다.



실제 LG전자는 지난 1월 소비자 요구에 맞춰 LG 휘센 썬큐 에어컨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최대 20평 공간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

냉장고는 지난해 선보인 제품부터 냉기 공급량을 미세하게 조절해 내부 온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등 차별화된 기능이 도입되면서 호평받았다.

세탁기·건조기 부문에서는 건조기가 판매 호조를 이뤘었다. 올해 초 미세먼지 주의보가 연일 울리는 가운데, 집안에서도 옷을 깨끗하고 건조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한몫했기 때문이다.

생활가전 수요 증가로 LG전자 H&A(홈플레이언스) 사업 부문은 올해 1분기 매출 5조4659억 원, 영업이익 7276억 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국내 LCC 조종사 5년간 940명 급증

항공기 도입 늘며 인력 확충
中 공격적 스카우트 대비도
같은 기간 ‘항공 빅2’ 170명 ↑

최근 5년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조종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LCC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결과로 정체를 보이고 있는 대형항공사(FSC)와 대조된다. 게다가 항공기당 필수 인력 수를 웃돌아, 중국 항공사들의 공격적 조종사 확보에 따른 인력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항공 종사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LCC의 조종사 수(사용업 포함)는 751명에서 2018년 1688명으로 124.8% 급증했다. 업체별로는 티웨이 항공이 101명에서 296명으로 가장 많이(193%) 증가했다. 이어 진에어는

163명에서 417명으로 156% 늘어났으며, 제주항공은 205명에서 499명으로 143% 증가했다.

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사는 같은 기간 4096명에서 4262명으로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한항공은 2713명에서 2753명, 아시아나항공은 1383명에서 1509명으로 소폭 늘어난 수준이었다.

이처럼 LCC 조종사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두드러진 LCC의 성장세로 수요가 급증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LCC 국내선 운송실적(수송고객)은 48.2%, 국제선은 무려 283.7%나 늘었다. 국내선 점유율은 절반 이상(58.6%)을 차지했고 20%에도 못 미쳤던 국제선 점유율 역시 42.5%까지 끌어올리며 대형항공사를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

아울러 LCC들이 확보한 조종사 수는 기본 필수 인력을 훨씬 웃돈다. 통상 항공기 1대당 12명의 조종사가 필요한데, 1분기 기준 4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항공이 확보한 조종사(499명)는 필수 인력(480명)을 넘는다. 진에어 역시 26대의 항공기에 필요한 조종사 수는 312명이지만 이보다 100여 명이 더 확보돼 있다. 이는 조종사 업무 강도는 낮추고 보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게다가 중국 항공사들이 고연봉을 내세우며 조종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인력난을 미리 방지한 측면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조종사 스카우트 움직임으로 향후 5~10년 내에 전 세계 항공업계가 ‘조종사 기근’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기송 수습기자 kissong@

SK에너지, 한국로지스틱스 대기업 부문 대상

SK에너지가 화물차 운전자 복지를 위해 14년 동안 ‘네트럭하우스’를 운영하며 만들어 온 사회적 가치 성과를 인정받았다.

SK에너지는 17일 한국로지스틱스학회가 주관한 ‘제22회 한국로지스틱스대상 시상식’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SK에너지는 육상 물류운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트럭하우스라는 사업 모델을 선도적으로 시행했다”며 “특히,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를 향상시키

으로써 공공 가치를 창출한 모범적인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SK에너지는 2006년 광양 화물차 휴게소를 시작으로 네트럭하우스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휴게, 주차, 정비, 주유 등 복합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SK에너지는 2022년까지 네트럭하우스 30개소를 확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부산, 광양, 인천, 평택 등 전국 주요 항만 및 물류 거점에서 19개 네트럭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yun@



김준규(오른쪽) SK에너지 네트워킹사업부 네트럭사업PL과 안승범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에너지

기아자동차는 올해 말까지 ‘EV 워크베이’를 △대광공업사(충주) △현대공업사(청주) △증평점(증평) △신암점(대구) △동흥점(제주)에 추가로 구축하고, 신규 인가 오토류 사업장부터는 필수적으로 설치해 전기차 소유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기아자동차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21기를 오토류에 추가 설치하는 등 전기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또 ‘전기차 안심 출동 서비스’를 실시해 전기차 운행 중 배터리 방전으로 주행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연 4회, 편도 80km 한도 내에서 원하는 장소까지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영록 기자 syr@

5G 덕에 방탄섬유 없어서 못 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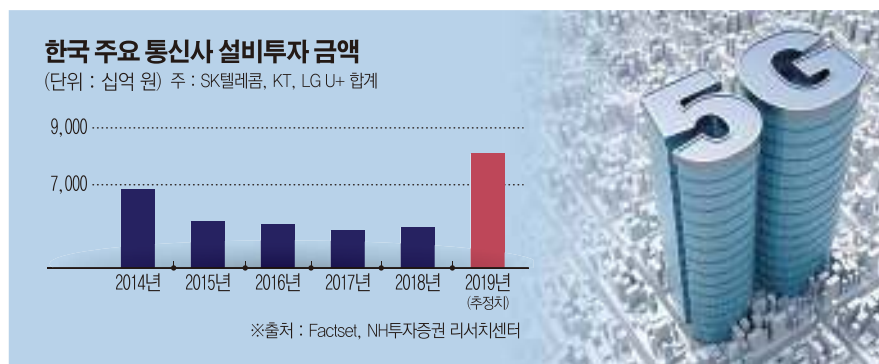
광케이블 재료 아라미드 각광
기관용 'PI 필름' 수요도 늘어

이통사 전국망 구축 속도 내자
코오롱·SKC 소재기업 수혜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한 이동통신사들이 본격적으로 통신·인프라망 구축에 나서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 SKC코오롱 PI 등 소재 회사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가 통신사의 5G 설비투자 확대의 원년이라고 짐작할 정도로 투자에 속도가 붙으면서 소재 회사들 역시 공장을 싹틔우기 가능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설비투자 금액은 8조1000억 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한 만큼 설비투자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집행되고 있다”면서 “통신 네트워크 장비 업체 외에도 망 구축에 필요한 필름, 산업소재 회사 등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생산하는 5G 광통신 케이블에 적용되는 소재인 아라미드 섬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5배 강하고 불에 타지 않아 방탄복, 군수



품 등에 쓰이는 것은 물론 광케이블 필수 소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5G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광케이블에 들어가는 아라미드 수요가 좋다”면서 “현재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SKC는 자회사 SK텔레시스를 통해 5G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5G 상용화에 따른 통신장비 수요 물량이 증가하며 SK텔레시스 역시 중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C 관계자는 “5G 경우 서비스는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LTE처럼 지역별로 배분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 “5G 관련해 SK텔레시스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대로라면 3분기 이후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5G와 관련해 사업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SKC코오롱PI 또한 5G망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5G 스마트폰에 직접 적용되는 5G 안테나용 연성회로기판(FPCB)용 폴리이미드(PI)필름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5G를 대비하기 위해 유전율(전기적 성질의 척도)을 낮춘 특수한 PI 필름을 사용한 FPCB 안테나가 스마트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전국망 구축 계획을 밝혔다”면서 “올해 안으로 각각 8만개 내외의 기지국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면서 소재 업체들도 덩달아 관련 소재 공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화토탈, 서산 유증기 유출 사고

권혁웅 대표, 재발방지 다짐
사고 후 유독물질 발견 못해

권혁웅<사진>한화토탈 대표이사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대산을 주민들, 협력업체 및 회사 직원들과 대산단지의 안전환경 관계 당국인 서산시와 소방당국, 노동부, 환경청 등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1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저장탱크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탱크 내부의 유증기가 유출되고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한화토탈은 서산시 소방관계 부처의 협조 아래 탱크 발열을 정상화하고 유증기 유출을 차단했으며 사고 확대를 막았다.

사고 후 유독물질 유출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대기 상황을 측정한 결과 공기 중 유독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지역주민, 협

력업체 및 회사 직원들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아 모두 귀가했으며, 추후에도 사고로 인한 건강 이상 발견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화토탈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지역의 가동을 정지 중이며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환경과 안전 경영에 더욱 노력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무재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GM 우수협력사 국내 32곳...사실상 세계 최다

11년 연속 美 다음으로 많아

국내 자동차 부품 협력사 32곳이 제너럴모터스(이하 GM)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다. GM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렌미시간에서 전 세계 협력사 중 15개국 128개의 우수 협력사를 선정, ‘올해의 우수 협력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업체 중 국내 부품 협력사는 광진기계, 두산인프라코어, 영화금속 등 32개사로 한국은 11년 연속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상업체를 배출했다. 조니 살다나(Johnny Saldanha) GM해외사업부문 구매부장은 “한국 협력사들의 혁신적인 기술 및 탁월한 품질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 협력사들의 활발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M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국내 협력

사는 2005년도 5개사에서 2018년 32개사로 늘어났으며, 최근 10년간 한국 협력사들의 GM 글로벌 누적 수주액이 113억 달러(약 13조5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글로벌 GM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카허 카젠펜(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한국지엠 협력사들이 11년 연속 GM의 세계 최고 수준 협력사로 선정된 것은 국내 협력사의 뛰어난 경쟁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월 GMI(GM International·GM 해외사업부문) 구매부문이 우즈오토(UzAuto), 한국지엠 협신화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산업발전과 부품공급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부품 협력사들은 우즈베키스탄 부품 국산화 활동 지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위한 부품공급 등 사업 확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포스코인터, 미얀마 구리광산 사업 철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구리광산 사업에서 손을 뗐다. 2014년 탐사에 돌입한 이후 6년 만이다.

19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초 미얀마 상갈론 지역에서 진행하던 구리광산 사업을 청산했다. 회사 관계자는 “경제성 있는 구리 광산을 찾지 못했다”라고 사업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4년 미얀마 현지에 있는 자원개발 법인 대우프레스스리소시즈(PRECIOUS RESOURCES CO.,LTD) 지분 60% 투자를 통해 구리광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사업에 약 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투자

금 손해를 무릅쓰고 대우프레스스리소시즈 지분 전량을 청산하며 해당 사업을 접기로 했다.

향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현지에서 식량사업, 미얀마 가스전 사업 등에 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현재 미얀마산 찐쌀 및 백미를 가공·판매하는 식량 사업의 경우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작년 11월 중국측 가스관 복구 완료 이후 꾸준히 판매량을 늘려왔으며, 내년 1분기에는 미얀마 북서해상 A-3 광구 내 신규탐사정 3공 시추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공유 킥보드 ‘씽씽’, 심부름 서비스 ‘땡땡’과 시너지 기대”

인터뷰 윤문진 피유엠피 대표

1인 이동수단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속속 서비스를 내놓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시장 진입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현대차는 2월 카이스트와 손잡고 공유 전동 킥보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카카오와 쏘카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내놔다. 단순히 ‘공유 전동 킥보드’로는 승부를 보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피유엠피(PUMP)는 이달 2일 어떤 자신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을 선보였을까. 2012년 온라인 기반 심부름 서비스 ‘땡땡’을 선보인 윤문진(40) 대표의 도전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을까. 물음표를 안고 13일 윤 대표를 서울 강남구 피유엠피 사무실에서 만났다.

윤 대표는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타보고 완전히 마음을 뺏겼다고 말했다. 하루에도 3~4번씩, 사용 시간을 점점 더 늘려 타기도 했다. 한국에 귀국하고서도 국내 스타트업들의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거의 매일 이용했다. 그는 “중독이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땡땡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새 사업 아이템을 고민해오던 윤 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순간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씽씽을 내놓은 배경이다.

美서 공유 킥보드 ‘라임’ 체험 타는 순간 사업 확신 들었죠

‘땡땡’ 서비스 오토바이 활용… 킥보드 수거없이 배터리 교체

정책제 통해 정기고객 확보 김동현 코웨이 전 대표 영입

심부름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인 땡땡은 월 10만 건, 누적으로는 350만 건을 기록했다. 정직원 80명, 메신저(라이더) 150명 규모다. 고지에 오른 사업은 씽씽을 출시하는 데 총알이 됐다. 땡땡 이전에 의류소핑몰 등 사업을 했던 그였기에 창업 경력은 적지 않았지만, 서비스 첫날의 감격은 남달랐다.

그는 “밤 12시를 넘긴 시간에 여성분이 멀리서 긴 생머리를 흘날리면서 타고 오는 모습을 보고 감격에 겨워 울 뻔했다”며 “준비 기간이 짧다고 생각했는데 그간의 고생이 스쳐 지나갔다”고 했다.

출시 뒤 예상보다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다. 피유엠피에 따르면 현재 일일 이용 횟수는 300만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내달 정식 출시 전까지 요금이 무료라는 점도 큰 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씽씽이 여타 업체와 차별점을 두는 부



윤문진 피유엠피 대표가 13일 서울 강남구 안주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분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땡땡과의 시너지다. 배터리를 교체할 때 땡땡 메신저들의 이동 수단인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서비스를 시작한 킥고잉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수거한 뒤 충전해 재배치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윤 대표는 “30cm 크기의 배터리를 15개씩 오토바이 한 대에 실을 수 있다”며 “2012년부터 오토바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오토바이를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

고 자신했다.

두 번째는 정책제 서비스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아 구성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피유엠피는 1일·주간·월간 이용권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 일회성 고객이 아닌 정기 고객을 확보하고자 렌탈 업계 전문가도 영입했다. 김동현 코웨이(웅진코웨이) 전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코웨이 전 대표를 지낸 그는 피유엠피에서 부대표를 맡았다.

렌탈과 공유는 제품 관리를 소비자가 하지 않고 서비스 받는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윤 대표는 “가전 영역에서 사용자들에게 필수품이지만, 구매 부담을 낮춰 진입 장벽을 낮춘 게 렌탈 서비스였다”며 “렌탈 업계 1위 코웨이의 전 대표를 영입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차세대 대중교통이 될 것으로 자신했다.

물론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만큼 주행 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면이 있다. 현행법상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탈 수 없고,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는 점,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요구되나 운전자도 알아서 해야 하는 점, 도로에서 달려야 하는데도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 점 등이 맹점으로 꼽힌다.

윤 대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3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시속 25km 이하 전동 킥보드에 대해 면허 면제, 자전거도로 주행 등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규제가 완화된길 기대하고 있다”며 “일단 서비스하는 처지에서 최대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가이드 방향에 맞출 것”이라며 “정식 서비스 출시 뒤 보험 옵션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씽씽은 서비스 지역을 현재 강남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전동 킥보드 공급 규모는 올해 2만~3만 대로 잡았다. 내년 말까지 수도권뿐 아니라 광역시,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입지 좁아진 교육업체 “해외로 해외로”

학령인구 감소·공교육 강화 여파 교육업체들 해외사업 잇단 확대

대교, 美·中·英 등 18개 국가에 621개 ‘아이레벨 러닝센터’ 운영
웅진씽크빅, 저작권 수출 성과
교원, 베트남 국영기업과 제휴

학령인구 감소와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입지가 좁아진 교육업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사업 진출과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교는 미국과 중국, 영국, 인도, 홍콩 등 18개 국가에 621개의 ‘아이레벨 러닝센터’ 법인 및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레벨 러닝센터는 ‘눈높이 러닝센터’의 글로벌 버전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 아이레벨 러닝센터를 방문해 개인 능력과 수준별로 1대1 맞춤 학습을 진행한다. 대교는 국내 교육 시장 트렌드로 자리 잡은 ‘눈높이’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1991년 미주지역을 필두로 해외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외에 신규 법인이 진출한 인도와 영국, 중국 시장에서 현지 교육환경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등에 참가하며 다양한 국가의 출판사들과 저작권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과학영역 전



대교 중국 상하이 '아이레벨' 러닝센터.

사진제공 대교

집 ‘바나나로켓’을 스페인, 프랑스, 중국, 홍콩으로 공급했고, ‘뚝뚝뚝 과학’은 대만, 홍콩, 중국, 프랑스, 독일로 수출했다. 특히 올해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다. 자회사인 웅진컴퍼스는 약 40개국에 수출을 진행 중이다.

교원그룹은 국내 교육기업 중 처음으로 2017년 8월 베트남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영기업 VNPT미디어와 아동용 교육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 첫 콘텐츠인 스마트 영어 ‘도요새잉글리시 멤버스’를 선보였다. 교원은 국영기업인 파트너의 이점을 살려 베트남 공교육에 진출할 계획이다.

NE능률은 ELT 전문 브랜드 ‘엔이 빌드앤그로우’ 교재를 중남미와 동남아, 중동 지역 총 2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멕시코, 브라질, 페루, 태국 등이 주요 수출 국가로 2013년부터 매년 28만 부 이상의

ELT 원서형 교재를 수출했다. 장원교육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에스티유니타스는 2017년 미국 교육 브랜드 ‘프린스턴리뷰’를 인수한 바 있다. 프린스턴리뷰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명문 교육 업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프린스턴리뷰가 보유한 빅데이터에 자사의 에듀테크 기술력을 접목한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교육은 2017년 2월 중국 1위 교육기업인 ‘신동방교육과학기술그룹’과 에듀테크 솔루션 기반 소통형 유아영어 프로그램을 ‘윙스’의 중국 현지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00만 위안(약 3억 5000만 원)과 별도의 로열티를 받는다. 윙스는 현재 신동방 산하 교육기관 400여 곳에 공급되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게임 질병코드 등재 철회해야”

이달 WHO 총회서 등재 여부 최종 결정… 게임업계 촉각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지가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질병 분류가 업계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2~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2차 총회를 열고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WHO는 지난해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에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올해 5월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국내 보건당국에서는 질병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추이를 점검해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게임중독은 질병이 아니라며 등재에 대

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문화재단은 직접 WHO에 의견을 전달해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이번 조치는 명백한 과잉의료화의 사례에 해당한다”면서 “많은 질병들이 WHO의 노력에 의해 퇴치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나, 질병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WHO가 의료산업에 봉사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지난달 말 WHO에 질병코드 등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자칫 게임에 몰입하는 행위 자체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고 게임 산업에 극단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지난해 웹사이트 ID 불법거래 491% 폭증

지난해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으로 거래된 아이디 게시물이 전년보다 491%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작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이용해 탐지한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총 11만5743건 가운데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이 45.7%인 5만2915건에 달했다. 지난해 아이디 불법 거래 게시물이 전년(8956건)보다 490.8% 늘어난 셈이다.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거래 또는 게시가 금지돼 있다. 불법거래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는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국내의 웹사이트 등에서 불법 거래된 아이디는 온라인 카페·쇼핑몰 등에서 상품·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홍보하는 데 활용된다.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조작과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법근 기자 nova@

“임대료 부담에…” 2층으로 간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7곳 중 1곳’ 2층
최근 서울·경기권 중심
커피숍·디저트카페 등
2층 가맹점 증가 추세
“브랜드 인지도가 성패 좌우”



“2층이 답이다.”

1층이 아닌 2층에 매장을 여는 외식 브랜드가 늘고 있다. 임대료 부담이 커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가맹점주들이 2층 점포를 대안으로 삼는 데 따른 현상이다. 2층의 경우 같은 상권이라도 1층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다. 중심가의 경우 1, 2층 간 월 임대료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운영하는 ‘맘스터치’는 전국 1182개 매장 중 15% 수준인 170개 점포가 2층 이상에 위치했다. 특히 서울 경기권 매장이 전체 2층 매장 중 4분의 1 수준인 40개로 가장 많았다. 2층 점포는 최근 계약하는 가맹점일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맘스터치는 2층 매장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서 임대료 부담이 큰 1층 대신 2층 매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가맹점주가 늘고 있다”며 “특히 임대료가 비싼 서울 경기권에 2층 점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서울 종로 등 중심가는 물론 하남 미사 같은 신도시에서도 2층 점포를 운영 중이다.

감자탕 프랜차이즈 이바돔은 유아 놀이시설을 갖춘 초대형 매장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100평 이상의 대형 매장 비중이 높은 이바돔 역시 2층 매장을 선호한다. 영등포, 인천 등 놀이시설만 50평 이상인 매장은 대부분 2층에 자리 잡았

다. 고기 구이 프랜차이즈인 교대이층집은 브랜드 네이밍처럼 실제 2층에 자리한 점포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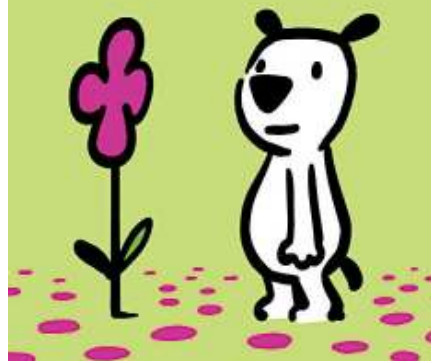
커피전문점과 디저트카페도 2층 이상 점포를 활용하는 곳이 많다. 커핀그루나 루는 변화가인 서울 홍대 상권에 2층 점포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설빙도 1층 외에 2층 점포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16년 일본에 진출한 설빙은 1호점인 하라주쿠점을 2층에 오픈하기도 했다. 하라주쿠점은 디저트 강국인 일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며 매일 장사진이 늘어서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2층 매장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지만 모든 브랜드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만 2층에서도 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안정훈 진창업컨설팅 대표는 “브랜드 정체성이 명확하고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 경우에는 굳이 1층이 아니더라도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과거 2층 점포는 PC방, 당구장 등의 업종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관심을 갖는 외식 브랜드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안녕~ ‘힌디’예요”

현대백·獨작가 협업 캐릭터 출시
비주얼 콘텐츠 제작 고객과 소통



현대백화점이 해외 유명 비주얼 아티스트와 협업한 자체 캐릭터를 선보인다. ‘비주얼(Visual) 콘텐츠’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현대백화점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비주얼을 가진 캐릭터를 만들어 고객과 친근하게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현대백화점은 독일 일러스트 작가 크리스토프 니만(Christoph Niemann)과 손잡고 자체 제작한 캐릭터인 ‘힌디(Heendy)’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자체 캐릭터를 개발해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토퍼 니만은 디자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진 ‘뉴욕 아트 디렉터스 클럽 어워드(Art Directors Club Award)’를 여러 차례 수상할 정도로 작품성과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다. 국내 기업과 협업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힌디’는 현대백화점의 영문 이니셜 초성인 H와 D를 활용해 만든 것으로, 사람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인 강아지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 회사 측은 올해 안에 ‘힌디’ 외에도 다양한 스토리를 담은 캐릭터 4~6종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힌디’를 시즌별 테마에 맞춰 온·오프라인 채널 연출과 각종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라이선스 사업도 추진한다. ‘힌디’를 주제로 한 웹툰·애니메이션과 30여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용 이모티콘을 만드는 한편, 생활소품·장난감·의류 등의 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정지정 현대백화점 디자인팀장은 “고객과의 소통에서 비주얼 콘텐츠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해 자체 캐릭터를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백화점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사업 다각화 나선 의류기업, 1분기 웃었다

패션 불황에 신사업… 제로투세븐 화장품 매출 123% ↑

패션 산업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화장품, 신발 등 사업 다각화에 나선 패션 기업들이 뿌린 만큼 거두는 모양새다.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와 스포츠 브랜드 MLB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패션 기업 F&F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어난 1627억1202만 원,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189억122만 원을 기록했다. 의류와 신발 사업을 운영하는 패션 부문만 따로 봐도 증가세는 뚜렷하다. 매출은 27% 증가한 1672억 원, 영업이익은 8% 늘어난 187억 원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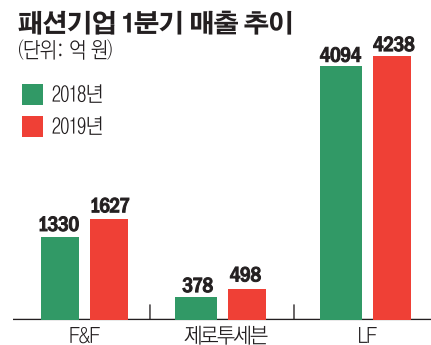
업계는 ‘디스커버리’의 신발 판매 호조에 힘입어 실적 우려를 털어내고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디스커버리는 올해 1월 어글리슈즈 ‘버킷 시리즈’를 처음 내

놓으며 신발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버킷 시리즈 중 처음으로 선보인 ‘버킷 디워커’는 5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6만 쪽에 이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F&F 측은 “올해 1분기 신발 사업 매출은 40%로 급격히 뛰었다”라며 “기존에 ‘다운’ 제품에 집중했던 회사 역량을 이제는 신발 사업 강화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동 전문 기업 제로투세븐은 화장품 사업과 포장 사업 부문에서 매출을 끌어올리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제로투세븐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498억1707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7% 늘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16억4700만 원에서 21억15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제로투세븐의 호실적은 화장품 브랜드 ‘궁중비책’이 이끌었다. 제로투세븐의 화장품 사

업 매출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05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33% 늘어난 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설한 포장 사업도 흑자전환에 한몫했다. 제로투세븐은 지난해 11월 분유 뚜껑을 만드는 CK 패키지를 흡수합병하면서 포장 사업부를 신설했는데, 해당 사업부는 올해 1분기 매출 80억 원, 영업이익 16억 원을 냈다.

방송, 교육, 식자재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LF 역시 올해 1분기 선방했다. LF는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성장한 4238억 원, 영업이익은 11% 줄어든 260억 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패션 시장이 불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외식업·여행·온라인플랫폼 등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선방한 것으로 자체 평가한다”며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헤지스 화장품 라인 출시로 인한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F는



지난해 ‘헤지스’ 남성 화장품 라인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여성 화장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패션 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실적을 끌어올린 것과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패션 산업은 가을·겨울 장사라고 해도 될 만큼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진출하는 패션 기업이 늘고 있다”며 “사업 다각화 실적 개선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패션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시도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

‘핑크리본’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등 앞장

아모레퍼시픽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창업자와 최고경영자가 사회공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 또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등 아모레퍼시픽의 사회공헌은 자연스럽게 기업문화로 정착됐고, 나아가 책임경영 실천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우선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하겠다는 소명으로 ‘A MORE Beautiful World’라는 비전 아래 모든 여성이 저마다 꿈꾸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연해 국내 최초 유방 건강 비영리 공익 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

단’을 설립하고, 2001년부터 유방 건강의식 향상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유방암 인식개선 및 교육·검진·수술 지원을 포괄한다. 핑크리본 캠페인의 대표 프로그램은 국내 최대 핑크리본 캠페인 행사인 ‘핑크런’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시작돼 올해 12주년을 맞은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피부 변화, 탈모 등 급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심적 고통을 겪는 암 환자들에게 자신을 아름답게 꾸꾸는 방법을 전수하는 교육 캠페인이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은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글로벌 CSR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8년까지 한



국에서만 총 1만3585명의 암 환자와 5599명의 아모레 카운셀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또 11년간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 및 지역에서 1만5734명의 암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는 말레이시아도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미선 기자 only@

롯데 “제네시스 G70’ 50대 쏘니다”

창립 52주년 ‘엘드림 페스타’ 진행

롯데가 창립 기념 경품으로 제네시스 G70 50대를 내걸었다.

롯데그룹은 창립 52주년을 맞아 9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고객 사은행사 ‘롯데 엘드림 페스타 2019’를 7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이번 행사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카드 등 9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엘롯데, 롯데마트, VIC마켓, 롯데하이마트, 롯데슈퍼,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롯데시네마, 롯데카드 올리마이쇼 팸플 등 15개 롯데 계열사 매장에서 롯데

카드로 누적금액 5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된다.

롯데는 행사 기간 총 4차례의 경품 추첨을 진행한다. 첫 번째 추첨 품목인 제네시스 G70은 17일부터 7월 7일까지 누적된 드림볼 보유 고객 중 50명을 추첨해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 17일부터 31일까지는 500명을 추첨해 공기청정기와 청소기를 증정하고,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500명을 추첨해 여행 캐리어를 준다. 또 다른 500명에게는 프리미엄 스마트 위치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추첨 이벤트 외에 드림볼 보유 개수가 많은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행사 종료일인 7월 7일 드림볼 보유 개수 상위 1000명에게는 롯데 모바일 상품권 5만 원을 증정한다. 남주현 기자 jooh@

제이브이엠, 그룹 편입 이후 내부거래 급증

온라인팜 등 내부거래 90% 육박
작년 매출 1036억 전년比 2.3% ↓

올해 러시아 업체 ATDPS 공급
1분기 매출 12% 늘어 주가 반등

코스닥 상장사 제이브이엠의 한미약품그룹 계열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2016년 그룹 편입 이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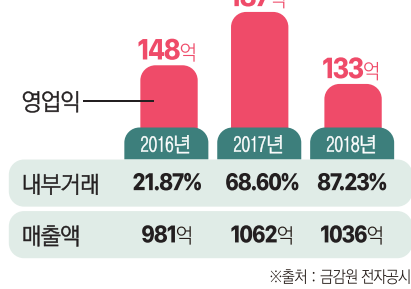
제이브이엠은 약품자동분류 포장시스템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한미약품그룹이 2016년 헬스케어 사업 강화 취지에서 제이브이엠 지분 30%를 취득했다. 현재 한미사이언스(37.42%)가 최대주주로, 중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에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이브이엠이 지난해 계열사들로부터 상품 및 제품 판매 등으로 거둬들인 매출은 총 904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23%에 달한다. 올 1분기 기준으로는 89.97%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제이브이엠의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시점은 한미약품그룹의 지분 취득 시점과 같다. 2016년 21.87% 수준이던 비중은 이듬해인 2017년 68.60%로 급등한 이후 지난해엔 90%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였다. 한미약품이라는 확실한 판매 경로가 생긴 효과다. 덕분에 인수 전 800억 원대를 이어오던 매출은 1000억 원대로 올라섰다.

제이브이엠 손익 현황
(단위 : 원)



그중에도 내부거래가 많았던 계열사는 온라인팜과 한미약품, 북경한미 등이다. 특히 350억6252만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2배 늘어난 한미약품은 제이브이엠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해외 대리점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의약품 도매업체 온라인팜 역시 눈에 띄는 기업이다. 1분기 기준 온라인팜과 한미약품은 6대 4의 비중으로 제이브이엠 매출을 책임지고 있다.

탄탄한 판매 경로를 확보했지만 지난해 실적은 부진했다. 제이브이엠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9% 감소한 1036억3537만 원, 영업이익은 29.05% 줄어든 132억9749만 원이다. 당기순이익은 28.81% 감소한 81억 5851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가 역시 꾸준히 하락세였다. 지난해 1월 2일 기준 5만6400원이었던 주가는 12월 11일 최저점을 찍고 연말 3만3600 원으로 마감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 한미사이언스에도 손상이 있었다. 제이브이엠이 적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은 플러스

(20억 원)를 기록했지만 주가 하락으로 인해 56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다행히 올해 들어 주가는 반등 조정(17일 종가 기준 3만9700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발표한 1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 상승한 253억 원, 영업이익은 24.7% 늘어난 3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규 고객과 해외 매출 증대가 실적 증진의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제이브이엠 관계자는 19일 “최근 러시아 의료가 공급 전문업체와 ATDPS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 잠재력이 높은 해외 각지에도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어닝서프라이즈’ 증권사, IB부문 영업이익 증가

전체 영업이익서 IB 비중 미래에셋대우 52.5%·NH투자 37.9%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잇따라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IB(투자은행) 부문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메리츠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서 IB 부문 비중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711억 원으로 33.6% 증가했다. 특히 IB 부문 영업이익이 899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37.9%를 차지했다. 이는 전 분기(22.3%)보다 15.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IB 수수료도 같은 기간 226.3% 증가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업공개(IPO)와 회사채 발행 인수주선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서울스퀘어, 삼성 SDS 타워 등 부동산금융 딜로 추가적인 IB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1420억 원, 당기순이익이 16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3.8%, 16.2% 감소했다. 다만 이는 희망퇴직 등 810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영향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IB 부문 영업이익은 746억 원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했다.

미래에셋대우관계자는 “1분기에 현대오토배너 IPO를 비롯해 쌍용양회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스테이트 남산 및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증권은 1분기 영업이익이 1659억 원, 당기순이익이 141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2.8%, 38.6% 증가했다. IB 부문은 889억 원으로 전체 순영업수익(2489억 원)의 35.7%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KB증권의 IB 부문 영업이익 비중이 27.3%를 차지했고, 한국투자증권(11.2%), 삼성증권(9.8%)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17일 대구시 수성동 DGB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디그니티 본점센터 개점식에서 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과 하이투자증권 김경규 사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DGB금융지주

하이투자證, DGB대구은행과 복합점포 개점

하이투자증권이 DGB금융지주 편입 후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한 첫 걸음으로 DGB대구은행과 결합된 복합점포를 개설했다. 이번 복합점포 개설로 새로운 윈스톱 금융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17일 DGB대구은행 수성동 본점 2층에 위치한 디그니티(DIGNITY) 본점센터에서 진행된 개점행사에는 배지숙 대구시의 회 의장,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그룹 임원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DIGNITY 본점센터는 DGB대구은행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이투자증권의 투자자문 노하우를 접목시켜 다양한 고객 맞춤형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투자전략 및 금융상품 교육을 기본으로 세무·부동산·경영컨설팅·주식 등과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을 일대일 개인 맞춤 상담, 세미

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다.

같은날 대구 달서구 월배동에서 제2호 복합점포인 DIGNITY 월배센터의 개점식도 진행됐다.

DGB금융지주 측은 하반기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센터와 대구 북구의 DGB대구은행 제2본점 내 복합점포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권역별 핵심 복합점포 설립을 시작으로 경북지역 진출에 이어 2022년까지 전국 광역권에 걸쳐 10여 개 복합점포 개점이 목표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향후 은행 고객기반이 우수하고 금융투자 상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신약개발 비용 처리했지만… 내실화 시급

상장사 재무 분석

에이티젠

에이티젠은 NK류키트와 신약 개발 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했다.

상당수 바이오 벤처기업은 개발 비용을 자산화하고 향후 개발 실패에 따른 잠재 위험을 키운다. 반면 에이티젠은 경산연구개발비용을 전액 비용 처리하고 있다. NK류키트와 NK세포치료제 개발이 성공한다면 회수되는 금액 또한 더 커질 수 있다.

◇에이티젠 연구개발비 비용 처리… 중장기 재무 긍정 요소 = 에이티젠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2016년 39억 원, 2017년 51억 원, 2018년 47억 원으로 최근 3개년간 매년 매출액 대비 50%를 초과하고 있다. 해당 비용은 에이티젠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경산연구개발비로 비용 회계 처리되고 있다.

최근 바이오 업계의 개발비 부실 회계 처리 이슈에선 자유로운 상황이다. 바이오 업계는 최근 수년간 회계적 자산화에 따른 향후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상각 혹은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으로 인한 회계상 자산 및 자본 변동 등의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엔케이맥스는 경산연구개발비가 2016년 8억 원, 2017년 24억 원, 2018년 28억 원으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지 않고 있다.

◇합병 배경은 유동성 확보…CB 전환청구 가능성도 변수 =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합병 배경으로 부족해진 자금 여력을 꼽고 있다. 부진한 매출과 손실이 이어지면서 내부 현금이 부족해지면서, 양사는

개발 실패 관련 위험은 해소

393억 CB 조기상환 변수 남아

현금 유동성 확대 절실한 상황

엔케이맥스와 합병 법인 추진

합병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외 신약 임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에이티젠의 작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82억 원, 엔케이맥스는 178억 원이다. 합병을 통한 연구개발비 관리, 효율적인 현금성 자산 활용 등이 이뤄져야 앞으로 진행되는 합병 법인의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

또 양사의 효율적인 비용 관리도 회사

안팎에서 요구되고 있다. 일각에선 양사의 중첩되는 비용을 효율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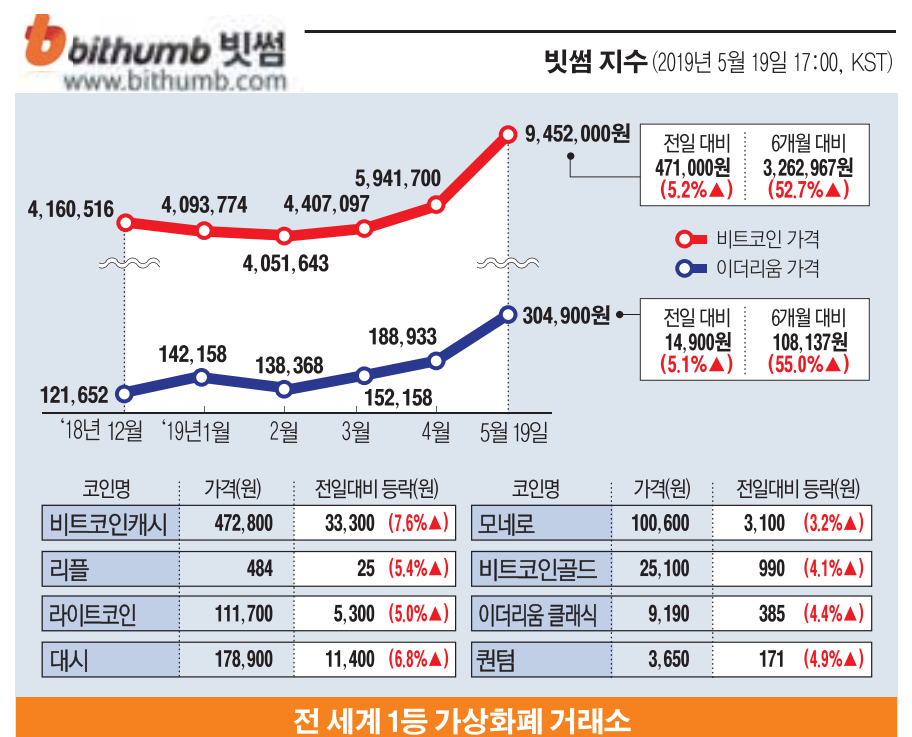
383억 원에 달하는 전환사채 상환 가능성도 합병 진행을 결정하게 된 요인으로 꼽힌다. 에이티젠의 잔존 전환사채는 6회(액면금액 기준 38억 원), 7회(액면금액 기준 70억 원), 8회(액면금액 기준 275억 원) 등 총 3건이다.

6회 채권자는 2018년 8월 29일과 그 후 4개월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행사될 수 있다. 7회와 8회 채권자는 각각 2020년 03월 30일, 2020년 6월 26일과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에이티젠의 전환사채 전환 가액은 6회 1만5140원, 7회 1만5297원, 8회 1만6463원 수준이며, 3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내년 3월부터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현재 주가 수준은 전환 가액을 웃돌고 있어 조기상환청구가 우려되는 가격대(올해 1~4월 주가 1만6000원 하회)다.

사채권자들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에이티젠은 현재 현금성 자산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 에이티젠이 내실화를 다지고 미래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채권자의 상환요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종민 기자 kjm@



“어수선한 수도권 피하자”… 지방 분양 기지개

신도시 ‘올대올’

10대 건설사 지방으로

3기 신도시 발표에 시장 요동
지방 공략으로 방향전환 나서
올들어 6797가구 공급 ‘침체’
5월 이후 분양 늘어날 듯

최근 신규 3기신도시 후보지들이 발표되면서 말 그대로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들끓고 있다. 실제로 주간 시세가 크게 떨어지는 등 시장도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은 지방 분양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양새다.

19일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5월 들어 지방 분양시장에서 10대 건설사 분양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시장의 경우 올해는 봄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했다. 지방 아파트 시장 침체로 분양 시장 역시 여파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보니 건설사마다 분양 시기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이런 시장 분위기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 지방에서 공급된 10대 건설사 아파트는 10개 단지에서 6797가구(일반분양 기준)에 불과했다.

지역으로는 대구와 대전, 강원 원주 및 춘천, 충남 아산 등 6곳에서 공급됐을 뿐이다. 그나마 4월에는 공급이 없었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지방에서 공급된 10대 건설사 물량은 22개 단지에서 1만1033가구로, 사업장 수로 비교하면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며 물량으로도 4200가구(62%)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서울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3기 신도시 등의 여파로 크게 출렁이고 있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오히려 지방 시장 공략에 나서는 모양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이후 지방의 10대 건설사 분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다. 다행히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다.

이달 초 현대엔지니어링은 부산에서 힐스테이트 명륜 2차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해 처음 부산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 부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는 곳이다. 5월 초 진행된 사전 무순위 청약 결과 예상외로 접수가 많았다. 이 아파트 이후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도 순차적으로 부산에서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에서 1월 분양한 남산자이하늘채의 경우 4만5000명 이상의 청약자를 모으면서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이후 10대 건설사 분양이 없다가 5월 중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다사역이 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 최초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후 힐스테이트 데시앙 도남(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감삼(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황금 센트럴(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3기 신도시 발표 후 1·2기 집값 폭

광교 0.13%·일산 0.03% 떨어져
서울도 0.02%↓… 26주째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26주째 하락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1·2기 신도시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소폭이지만 확대됐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하락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마포구의 아파트값이 0.35%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강북(-0.03%), 송파(-0.03%), 강서(-0.02%), 서초(-0.02%), 영등포(-0.02%), 성북(-0.01%) 순으로 떨어졌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대장주로 통하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약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문의가 장기간 끊기면서 그동안 잘 버티던 랜드마크 단지도 매물이 쌓이는 분위기다. 또한 지역 내 매물이 늘면서 상암동 일대 매매가격도 조정됐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가 5000만 원 떨어졌고, 상암동 월드컵파크7단지가 1000만~5000만 원 하락했다.

신도시의 아파트값 하락폭이 확대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은 -0.04%를 기록해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컸다. 2기

신도시의 하락폭은 전주와 같은 -0.0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교(-0.13%) △평촌(-0.12%) △일산(-0.03%) △중동(-0.03%) △분당(-0.02%) △판교(-0.02%) 순으로 하락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과 파주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우려감이 높은 상황인 가운데 거래 자체가 끊긴 분위기다.

광교는 이의동 광교e편한세상과 교과자연앤힐스테이트가 1000만~1500만 원 떨어졌으며, 평촌은 평촌동 초원대입이 1000만 원 하락했다. 일산은 일산동 후곡15단지건영과 주엽동 강선14단지두산, 장항동 호수5단지청구 등이 250만~1000만 원 조정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은 -0.01%로 집계됐다.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동일한 -0.05%를, 2기 신도시는 0%를 각각 나타냈다.

서울 전세가격은 △강동(-0.17%) △강북(-0.11) △성북(-0.09%) △동작(-0.08%) △영등포(-0.07%) △금천(-0.01%) 순으로 떨어졌다. 강동은 6월부터 하반기까지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명일동 신동아와 우성, 한양, 고덕현대, 명일삼한 등이 1000만~2000만 원 빠졌다.

서지희 기자 jhsseo@



1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주엽공원에서 일산·운정·검단 3개 신도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아웃…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철회하라”

거리로 나선 신도시 주민들

18일 주엽공원에서 2차 집회
일산·운정 등서 1만여명 모여

“지역구 주민들 뒤통수 때려
3기신도시 지정 철회때까지
수도권 주민들과 연합투쟁”

7일 3기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발표 이후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약 1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김현미 아웃’을 외쳤다.

12일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연합집회를 가진 일산신도시 연합회는 18일 밤 7시 주엽역 3번출구 주엽공원에서 제2차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이 약 1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했다.

주엽공원 입구에서 약 200m까지 시민들이 운집했다. 수도권신도시연합 총괄기대회로 이날 집회에는 일산신도시뿐 아니라 운정신도시, 인천검단신도시, 김포, 부천, 인천, 남양주왕숙지구 등 수도권 전역의 3기신도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참여했다.

앞서 일산신도시 연합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엽공원에서 집회를 가진 이후 김현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까지 가두행진을 할 것이라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후곡마을 한 거주민(49)은 “김현미 의원이 이렇게 일산주민들의 뒤통수를 때릴지는 몰랐다”면서 “3기신도시에 이어 광역버스요금인상까지, 주민들은 김현미 의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산신도시 연합회 관계자는 “1주일 동안 일산 아파트 가격 낙폭이 4배 떨어진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고, 주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지어 병원을 찾는 사람들, 가정 불화로 인해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호소가 담긴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김현미 장관은 3기신도시 고양 지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며, 일산 주민들은 3기신도시 지정 철회때까지 수도권 주민들과 연합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주간매매가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서구의 이번주 아파트 가격(13일 기준)이 전주 대비 0.19%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08)의 두 배를 넘는다. 지난해 8월 27일(-0.34%) 후 최대 수준의 하락폭이

다.

일산동구의 아파트 가격도 부진했다. 이번주 하락폭은 -0.10%로,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5배로 커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일산동구의 평균 매매가 변동률은 -0.06%였다.

한편 이날 집회를 하기로 한 주엽역은 김현미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일산서구에서 주민들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곳으로 일산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일산신도시 중앙로를 통과해 김 의원의 사무실까지 행진했다. 김 의원 사무실이 있는 주엽동 상가에서 행렬을 멈추고 일제히 ‘김현미 아웃’, ‘3기 신도시 아웃’, ‘이재준 아웃’ 등의 구호를 연호했다.

일산서구 후곡마을에 거주하는 40대 주부는 “김현미 의원이 지역구를 버리고 전복으로 출마할 것이다, 총리로 나오기 위해 일산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일산 신도시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며 “김현미 장관은 반드시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캘린더

5월 넷째 주 전국에서 1만4723가구가 분양된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성남시 금광동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주’, 화성시 산척동 ‘동탄더샵템플리스’ 등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당첨자 발표는 14곳에서 진행된다. 부산 동래구 명륜동 ‘힐스테이트명륜2차’,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파라곤 2차’, 세

날짜	구분	시	구	지명	연면적	아파트명				
5/20 (월)	접수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영도동삼동비룡벨로	스텔라 1순위				
						영도공공주택지구2단지(국민임대) (~5/22) 영도공공주택지구4단지(국민임대) (~5/22)				
5/21 (화)	접수	경기	화성시	산척동	동탄더샵템플리스(11블럭) (~5/22) ♣ 동탄더샵템플리스(12블럭) (~5/22) ♣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영도동삼동비룡벨로	스텔라 2순위
						광주	광산구	쌍암동	광주쌍암동미르재비파크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신트럴오션힐 1순위	
발표	부산	동래구	명륜동	힐스테이트명륜2차						
5/22 (수)	접수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1순위(당해지역) 금광동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주 1순위(당해지역) 중앙동 신흥역하늘채랜드스원 1순위(당해지역)					
						성남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파라곤(AA14) 1순위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신트럴오션힐 2순위	
	발표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파라곤2차(A40)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시송다대시영(C1)						
5/23 (목)	접수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1순위(7기7구역) 금광동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주 1순위(7기7구역) 중앙동 신흥역하늘채랜드스원 1순위(7기7구역) 시흥시 장원동 신흥정원빌로업동2차(2기1순위)					
						양주시	옥정동	양주시A(중흥3클러스터)시티(A11-1) 1순위 양주시A(중흥3클러스터)시티(A11-3) 1순위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파라곤(AA14) 2순위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비치울리브씨 ♣ 광안비치울리브씨 ♠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구덕다산현대시티 1순위	
						경기	이천시	송송동	이천시종3지구대원탄벨트벨트시티파라	
	발표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신오션리조트					
	광주	남구	주월동	광주주월대리수아썬블릿지						

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한뫼마을 5단지’ 등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9곳으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포레스트’,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비치울리브씨’,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용봉동한국아파트리움비엔날레2차’ 등이다.

견본주택은 7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아이파크’, 세종시 반곡동 ‘세종자이e편한세상’ 등이 견본주택을 열고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5/23 (목)	발표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배방6차한성필하우스	
		세종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1·5생활권4차한성필하우스(C1)	
5/24 (금)	접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신아역힐데스하임참출문(C1)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서역삼정그린코리도P1베스트	
		부산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 ♣	
			두산위브더제니스하버시티	
		대구 중구 태평로3가	대구역경남센터로펠라씨 ♣	
		광주 서구 광정동	광주광장아파르크 ♣	
			광주광장아파르크	
		세종 세종시 금남면	세종다후에미지(4·2생활권P1)L1	
			세종다후에미지(4·2생활권P1)L2	
			반곡동세종자이엔한세상(4·2생활권)4공공분양	
5/25 (토)	발표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2순위	
		경기 성남시 중랑동	금강동e편한도시세강남그린매즈 2순위	
			중랑동 신촌역하채랜드스퀘어 2순위	
			시흥시 당현동	시흥자현동원로알두크2차 2순위
			양주시 옥정동	양주시2차중흥3콜라보시티(A11-1) 2순위
			양주시2차중흥3콜라보시티(A11-3) 2순위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대구역다산현대시티 2순위	
			경기 고양시 송산동	일산자이아파르크(만년전대)
5/25 (토)	발표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비치울리브씨 ♣	
			광안비치울리브씨 ♠	
		광주 광산구 쌍암동	광주쌍암동미치레라퍼비크 ♣	
5/25 (토)	계약	광주 광산구 쌍암동	광주쌍암동미치레라퍼비크 ♣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피스 단지는 사업진행 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강원랜드 퇴직자 3000여 명 420억 미지급 청구 소송 최종 패소

강원랜드 직원 30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라도 고정성이 없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 씨 등 강원랜드 직원과 퇴직자 3094명이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 씨 등은 2009~2013년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총 4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회사 측이 2개월 기준 15일 이상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특정일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준 명절·연말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15일 미만 근무자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의 대

가가 아니라거나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특별상여금의 경우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가 필요해 고정성을 갖추지 않은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기상여금이 15일 근무기간의 조건부로 지급된 만큼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효진 기자 js62@

계약직 채용 후 이중계약서 작성 법원 “고용촉진지원금 반환하라”

정규직 채용처럼 꾸며 부정수급

채용일을 속이고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을 타낸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0일 어학원 운영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정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어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를 이수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가 고용한 직원은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를 이수하기 10여 일 전 실제로 고용됐고, 계약직에 불과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정장은 부정

수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1800만 원의 추가징수액 부과, 9개월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 등 처분을 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개시일은 1단계 종료 이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된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직원을 고용하면서 재계약 약정이 담긴 ‘강사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을 바탕으로 한 ‘표준근로계약서’ 등 2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고용된 직원의 급여 및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계약서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특히 강사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다른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책 속의 패션쇼

‘마에스트로, 책길을 걷다’를 주제로 한 서울365 김서룡 디자이너 패션쇼가 열린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책보고에서 모델들이 런웨이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비횡령 혐의’ 동국대 前 총장 무죄 확정

대법 “회계담당자 착오 가능성”

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학교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전 동국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2016년 3월 A 씨 등 학생 3명이 페이스북에 ‘보광은 총장 4수 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자 처장 회의를 소집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의한 후 착수금(변호사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비에서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를 구성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 비용이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데는 학교 회계비용의 지출 처리에 관한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성립,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효진 기자 js62@

싸이월드 ‘4억 광고료 미지급’ 소송 패소

상환 미루고 재판도 안나와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세대 격인 싸이월드가 4억 원 규모의 광고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15일 CJ파워캐스트가 싸이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매체 사용료 중 미회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CJ파워캐스트는 싸이월드가 외상으로 사용한 광고매체 사용료 4억18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싸이월드는 CJ파워캐스트의 변제 독촉내용증명을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상환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싸이월드 측은 지급명령

을 받은 뒤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했다.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싸이월드가 CJ파워캐스트의 주장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싸이월드는 1999년 개발된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로 ‘미니홈피’ 서비스가 각광을 받으며 2000년대 인기를 끌었다. 가입자 수 3200만 명, 매출액 1000억 원대를 달성하기도 했으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밀려 쇠락했다. 2014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분사된 뒤 2016년 동영상 커뮤니티 업체 에어라이브와 합병을 거쳐 프리셀 창업주 출신 전제완 대표에게 인수됐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19. 05

은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볼소롱 레시피

상차와 타고 사이 '기쁨'을 주는 사람들

시니어 괴롭히는 난청, 쉽게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는 전설부터가 조선에는 중장년 취미가 가득

나만의 공간을 향유하다

Agit

COVERSTORY 아지트를 찾아서

- PART1. '2019 시니어 아지트' 설문조사 - 당신에게 아지트란?
PART2. 지붕 없는 아지트 - 종로3가역 5번출구
PART3. 지자체 아지트 - 또래끼리 배우고 우리끼리 놀자
PART4. TV 속 아지트 - 시니어의 아침, 내 생활대로 먹는 게 최고야!
PART5. 셀럽의 아지트 - 살 속에서 나만의 공간을 찾다
PART6. 이별 먼 여행 - 유령별로 추천하는 시니어 아지트

텔레이징 시니어 괴롭히는 난청 악화 막으려면 보청기 착용해야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신모 씨는 최근 손주를 보는 재미가 줄어들어 걱정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내들이 말없이 터진 후 형제 도란도란 대화를 하는 것이 삶의 낙 중 하나였는데, 요즘 부쩍 손주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어졌다. 난청 증상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조용한 장소에서 무뎠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일도 많아졌다. 가톨릭대학교 안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현진 교수는 “노인성 난청은 방치하면 악화되기 쉽다고 경고한다. 이 교수를 통해 노화로 인한 난청과 이명에 대해 알아보았다.

귀촌



그리움을 불러오려하는 거다. 일터면, 소 잔등에 쏟아지는 석양색의 붉은 햇살처럼 목가적인 풍경들이 배고프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밥을 나눠주었던 인정이 타향을 사는 자에게 향수란 근원을 향한 갈증 같은 것. 살아만 여차피 부림초처럼 객지를 떠도는 일이지 않던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향수가 깊어졌던 모양.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아질 즈음, 심 씨는 서울생활을 후다닥 접었다.

귀촌 준비? 그런 것 전혀 없이 내려왔다

향수(鄕愁)가 귀촌을 촉발했다. 향수 이전엔 산기술에 사는 심원복(57) 씨의 얘기다. 어릴 때 경험한 시골 풍경이 일주 아꼴한

신라보가 만난 사람들



초연결시대, 노년과 지혜와 현대 과학이 융합할 때 진정한 진정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해설처럼 나타난 육신 스타 스포츠 스타 정재근



울곧은 뮤지션, 영원히 젊은 그의 노래 자리에 실려 온 허남석, 지치지 않는 청춘의 삶을 살다



타박타박 도보여행 봄 향기 따라 오감만족 남원을 거닐다

남원 하연 훈향, 훈향 하연 관현무림만 생각났다. 남원에는 진정한 자연의 맛과 향이 가득하다. 공리하연 때에 마침 감청종마술관이 개관했다. 오래된 동네 흥집과 갯길 좋은 덕유산 술바람길도 발견했다. 이 신라보가 미술관과 연결되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남원을 여행하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나태주 시인의 '꽃피는 시가 종종 생각났다.

자격증 두드림 '先 사회복지사 後 요양보호사'가 효율적

자격증에 관심을 두는 중장년이 많아졌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 자격증을 취득하듯, 시니어 역시 재취업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 2019년 등록된 자격증 수는 3만2000여 개. 관심 있는 자격증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지 않다. 이에 고만민 중장년을 위해 자격증을 분야별로 나눠 알아보려 한다. 이번 호에는 '노인복지·돌봄' 분야를 소개한다.

시니어 밥상

음용제 사할음식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볼소롱 레시피

부치지 못한 편지

신아연 소설가 잔인한 봄날의 편지

“자본유출 경계감 가져야” vs “과민반응할 때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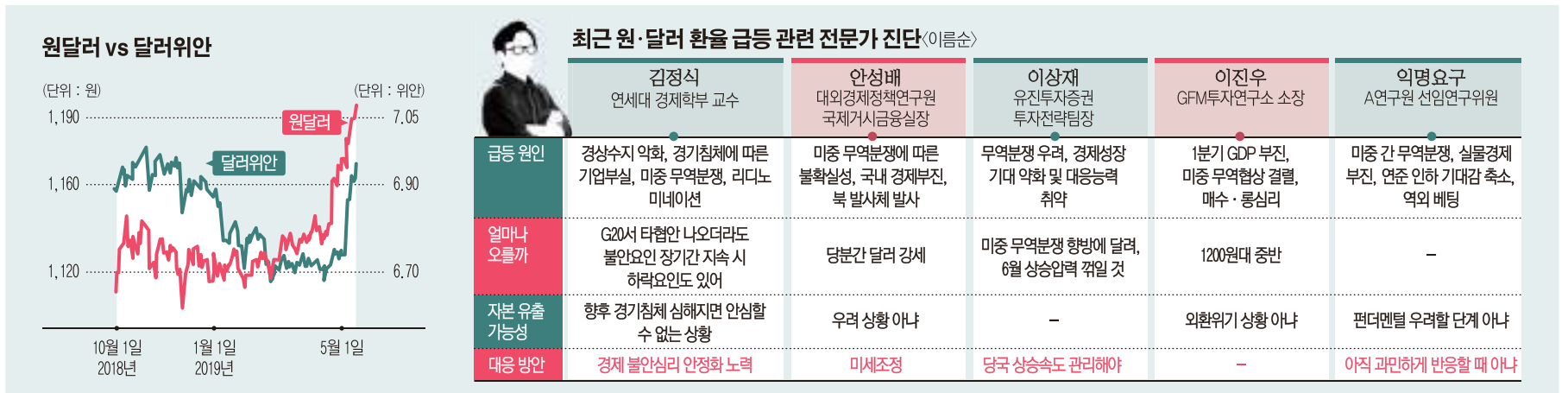


김남현의 **알가일부**

원·달러 환율 1200원 눈앞 경제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안팎의 분위기로는 곧 1200원을 뚫을 기세다. 문제는 최근 오름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서도 3월 말 대비 8일(1169.4원) 기준 원화는 2.9% 올랐다(원화가치 약세). 이는 최근 위기를 겪는 터키(9.0%)와 아르헨티나(3.7%) 다음으로 오름 폭(약세 폭)이 큰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급등 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대내경제 상황, 달러강세에 배팅하는 역외세력 움직임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리디노미네이션(화폐 개혁) 논란 등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는 평가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자본유출 전조는 아니라는 평가다. 다만 불안 심리가 더 확산하기 전에 경제 안정화 노력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환율미세조정(스무딩오퍼레이션)에도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달러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유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이하 안 실장) =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하나다. 우리 경제 수출구조가 미국과 중국에 많이 의존해 있다. 둘을 합치면 작년 기준 45% 정도 된다.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 경제상황이다. 1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 성장률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이 밖에도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



경기침체 가능성

美中 분쟁·국내경제 부진 여파 등 복합적 요인이 원화약세 부추겨 환차손 우려 자본유출 대비해야

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이하 이 팀장) = 원화가 위치하고 있는 로컬(지역) 통화로서의 한계다. 세계경제 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환경변화가 크다. 반면 위안화 등 여타 통화보다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한 것은 중국의 경우 부양여력이 있다고 보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내수경기 등 여건상 부양여력이 취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 교수) = 경상수지 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부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 최근 논의되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익명요구 A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A 선임) = 미중 간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과 한국 실물경제의 부진, 미 연준(Fed)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 소멸 등이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가 오르면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진우 GFM투자연구소장(이하 이 소장) = 원·달러가 오르기 시작한 단초는 4월 말 1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나오면서부터다. 이후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면서 급등했다. 역외 위안화가 6.9위안을 넘어서고 있다. 7위안대로 상승한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다. 당국도 편다멘탈이 좋다고만 할 뿐 역부족인 것 같다.

-김 교수 = 현재로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다만 원·달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환차손을 우려해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겠다. 경기침체가 심해진다면 자본유출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A 선임 = 원·달러는 오랜 기간 위아래가 팽팽하며 박스권에서 움직여 왔다. 최근 위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일 뿐이다. 3~6개월 정도 긴 흐름의 맥락에서 봐야지 한 두 달 오른 것을 두고 편다멘탈이 흔들린 다거나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채권시장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자본유출 우려 역시 과하다. 원·달러가 급등하고 있지만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35bp(1bp=0.01%포인트) 선에서 안정된 흐름이다.

△1200원 후 원·달러 환율 추이는 -이 소장 = 원·달러 상승을 저지할 매물이 많지 않다. 달러 강세 심리도 쉽게 멈추지 않고 있다. 원·달러가 하락한다 해도 1150원 정

환율 변화 모니터링 강화

1400원까지 오를 상황 아냐 내달쯤 상승압력 꺾일 듯 경기 정착록 막는 조치 필요

도로 보는 상황이다. 기술적으로도 전고점인 1214원이나 1245원이 다음 저지선이 될 듯 싶다. 다만 현재의 편다멘탈로 보면 1300원이나 1400원까지 오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팀장 = 전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향방에 달렸다. 당분간 원·달러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이 당분간 냉각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6월 초 늦어도 6월 말경 원·달러 상승압력이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 = 국내 요인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상승 요인이 더 커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을 위해 달러를 마냥 강제로 가져가기 어렵다. 달러 약세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원·달러도 하락반전할 수 있겠다. 6월 말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미중 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타협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취약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환율 불안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기 위해 당국이 원·달러 상승을 용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 실장 = 수출 부진 이슈도 있으니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최근 환율과 수출 간 관계는 예전보다 떨어져 있다. 정부가 그것 때문에 환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시장 안정화 등 대응방안이 있다면 -김 교수 = 수출 독려 정책으로 수출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출선 다변화도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 기업투자를 늘려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 정착록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팀장 = 문제는 단기간에 오르면서 금융불안이나 외환불안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방적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외환당국은 시장 개입에 나서야 한다.

-안 실장 = 과거 미국과 환율보고서와 관련한 협상을 할 때도 외환당국은 환율레벨을 타기팅하는 게 아니라 급격한 변동에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환율의 급격한 변화에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성을 줄여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A 선임 = 당국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인지 모르겠다. 당국 개입의 명분이나 당위성을 가지려면 과민반응하거나 불안감에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또 과거처럼 수출경쟁력을 위해 원·달러를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츠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전문성식을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안전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충알고 다르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해주는 대충알고 실리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충알고, 후속한 성장설계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충알고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선배로서의 책임감에서 출판해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

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적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히려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적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496면 | 지음 / 이나현 | 국문판권 / 2018.05.01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책을 읽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게 함은 물론, 같이 읽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정호 지음 / 232쪽 / 국문판권 / 2018.05.01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하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뱀캣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인기 상임위’ 환노위 4년 고수…송옥주 미세먼지특위 위원장 “국민께 ‘맘 놓고 숨 쉴 권리’ 돌려드리려”

공기청정기·미세먼지 측정기
학교 교실마다 설치 의무화 성과
법 통과되고 특위 출범했지만
체감 효과까지는 시간 걸릴 것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위원장 출신 등 노동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환경에 더욱 매진했어요.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이슈에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송옥주(사진)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야겠다 생각이 었다”며 의정활동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비인기 상임위인 환노위를 4년 내내 고수한 송 위원장은 줄곧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이제 국가적 재난이라 할 만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환경 이슈”라며 “환경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이슈이지만, 노동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송 위원장은 “해결책을 찾다 국회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017년 제안했고, 그해 말 미세먼지대책 특위



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뒤 송 위원장은 누구보다 환경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학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족이 자주 찾는 키즈카페, 찜질방, 영화관 등의 공기 질 관리를 법적 관리할 수 있도록 이끈 것이 송 위원장의 대표적인 성과다. 그가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법안은 2년간 계류됐다 올해 통과됐다. 송 위원장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과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충실하게 통과돼서 기쁘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세먼지 대응법안이 통과됐어도 국민이 당장 체감할 만한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당과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줄일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가 법안에 충실히 담기도록 직접 발로 뛰었다. 그는 12일 충북 단양 시멘트공장을 찾아 미세먼지 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은 물론 환경청과 지자체에 현실적인 저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동안 충남 당진과 보령의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배출 현장을 조사했지만 충북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 위원장은 “충북은 내륙이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도 당정 협의, 회의, 간담회·토론회, 현장 목소리 청취,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고 이를 입법으로 연결해 성과로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께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 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작은 노력과 지혜들이 모인다면 더 푸르고 깨끗한 하늘과 생활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현대기아차, ‘제10회 발명의 날’ 우수 특허 발표대회
대상에 ‘소형차 충돌에너지 흡수’ 김도희 책임연구원



2019년도 현대기아차 발명의 날 행사에서 우수특허 수상자들이 현대기아차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는 17일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2019년도 제10회 발명의 날 행사를 열고, 우수특허 발표대회를 통해 우수특허들에 대해 포상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발명의 날 행사에서는 작년에 특허 출원된 3000여 건의 아이디어들이 경쟁을 벌였다. 현대·기아차는 이 가운데 상위 6건의 우수특허를 최종 결선에 진출시켰다.

최종심사는 특허평가 등급과 프레젠테이션 이후 진행된 문자투표 점수를 합산해 진행됐으며 △대상 김도희 책임연구원(소형차 3중 충돌에너지 흡수 및 차체 거동 최적화 구조) △최

우수상 차동은 책임연구원(에디팅 차량의 체결 기술), 강민우 책임연구원(전산합금 설계를 활용한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신 성분계 개발) △우수상 하경구 파트장(저소음 운전압력 조절 장치), 박상준 책임연구원(에코 코스팅 주행 중 가속시 킥다운 변속 응답성 개선을 위한 유압 제어 로직), 김균하 연구원(생체신호기반 탑승자 상태 판단 및 위험 상황 대처방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 2명에게는 각 200만 원, 우수상 수상자 3명에게는 각 100만 원이 수여됐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철원고추냉이가 박상운 대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강원도 철원 ‘철원고추냉이가(家) 영농조합법인’의 박상운(사진) 대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철원고추냉이가 영농조합법인은 고추냉이 수경 재배에 유리한 철원의 자연환경과 특허받은 재배 기술을 이용해 국내 최대 규모의 물고추냉이 재배단지를 조성했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고추냉이 가공제품을 개발했고, 체험 행사를 선보였다. 2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박 대표는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원격으로 측정·제어하는 고추냉이 수경재배시설을 구축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반려동물·새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탈취제는 천연 성분을 이용해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BGF, 도봉산 일대 국립공원 환경 지킴이 ‘줍깅’ 봉사

BGF 임직원과 가족들이 ‘국립공원 환경 지킴이’로 나섰다. BGF는 18일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탐방로 일대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트레킹도 즐기는 ‘줍깅’ 봉사를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BGF, 국립공원공단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은 대자연 속에서 트레킹을 즐기며 국립공원 내 쓰레기를 줍고 등산로 등의 시설물을 점검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린포인트’ 참여 캠페인도 펼쳤다.

‘그린포인트 제도’는 자기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되가져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쓰레기를 수거해 적립장소(탐방안내소, 탐방지원센터 등)에 가져오면 무게



를 달아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전국 CU(씨유) 매장에서 PB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쓰레기 1g = 2포인트, 단 1인 1일 최대 2000포인트 제한)

6살 딸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한 BGF 리테일 이은관 차장은 “트레킹도 즐기고 자연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아이와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기아차, 난민 어린이 축구화 기부

기아자동차는 유럽축구연맹(UEFA) 아동재단과 함께 요르단 자타리 난민 캠프의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화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축구화 기부 캠페인은 UEFA 유로파리그 공식 후원사인 기아차가 주최한 ‘UEFA 유로파리그 트로피 투어’ 기간 진행됐다.

기아차는 현재까지 유럽 8개 도시를 순회하며 700 켈레 이상의 축구화를 기부받았으며,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 경기 이후 요르단 자타리 난민캠프에 축구화를 전달할 계획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뉴발란스, 육상꿈나무 러닝화 후원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가 한국 육상꿈나무 유망주들을 후원하는 MyNB(마이엔비) 기부 캠페인을 이어간다. 뉴발란스는 15일 한국 중·고육상연맹 사무실에서 이랜드재단을 통해 한국 중·고 육상연맹 소속 스포츠클럽 361명에게 총 6000만 원 상당의 러닝화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품은 지난해 9월 진행된 마이엔비 기부 캠페인 ‘런 포 유일 드림’을 통해 모인 기부금 1억 원으로 같은 해 11월 한국 중·고 육상연맹 소속 스포츠클럽 55명에게 전달한 겨울 벤치코트에 이은 2회차 후원물품이다.

박미선 기자 only@

한화생명, 연도대상 시상식…강희정 FP명예상무 여왕상

한화생명은 1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2019년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차남규 부회장, 여승주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과 FP(Financial Planner, 재무설계사) 등 1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700여 명의 FP와 40명의 영업관리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도대상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여왕상은 수원지역단 일왕지점 강희정(48) 영업팀장(명예상무)이 수상했다. 지난해 수입보험료 80억 원, 월납초회보험료 2억8000만 원, 유지율 97%를 달성했다. 강 상무는 연도대상 2~3위에 해당하는 대상을 4회 수상하는 등 매년 우수한 성적을 이뤄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영업실적 외에 고객서비스와 CEO면접, 평판조회 등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발되는 FP명예상무에 지난해 임명됐다. 서지연 기자 sjy@



2019년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차남규 부회장(왼쪽)과 여승주 사장(오른쪽)이 여왕상을 수상한 강희정 FP명예상무(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검역부장 김원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전자전기과장 남명우 △무역위원회 팀핑조 사과장 양원창

◆우리종합금융 ◇신규 선임 △경영기획부 상무대우 변정석

부음

▲박병현(전 보광그룹 사장·전 CJ미디어 상무) 씨 별세, 최연희 씨 남편상, 박정렬(드림웍스애니메이터)·주열(쥬라사대표) 씨 부친상 = 1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20

▲방경진(전 한국광물자원공사 남북자원협력실장·현 코네티비즈에너지 자원분야 전문위원) 씨 별세, 윤진욱 씨 남편상, 방수인·석인 씨 부친상 = 1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9시, 02-3410-6933

▲권영각(전 국방부 차관·전 건설부 장관, 전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씨 별세, 권정혜(고려대심리학과 교수)·명혜(뉴질

랜드 거주)·미혜(뉴질랜드 거주)·경혜(뉴질랜드 거주)·오준(LG화학 부사장) 씨 부친상, 김도경(전 LG경제연구소 근무)·봉국중(뉴질랜드 거주) 씨 장인상, 신지선(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씨 시부상 = 18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70-7816-0229

▲유성규(전 부경대 총장) 씨 별세, 윤량숙 씨 남편상, 유영민(쥬KCTC 물류영업부 대리)·영철(연세대 의과대학 부교수)·아영·정원 씨 부친상 = 19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1일 오전 6시20분, 02-2227-7580

▲강의영 씨 별세, 김상목(국가상징선양회 회장)·상길(한화생명 법인사업부장·상무)·상복·경자·상숙·경숙 씨 모친상, 김

성년·노재복·김광호·김종문 씨 장모상 = 18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 02-2030-7902

▲김경애 씨 별세, 이대산(KT에스테이트 사장)·대용(서울예고 교사)·대길(자영업)·순복(주부)·대석(창성정밀 차장) 씨 모친상, 장운호(전주플러스치과 원장) 씨 빙모상, 홍애경·김미정·박보미·이국화(주부) 씨 시모상 = 1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45분, 02-2258-5922

▲박남득 씨 별세, 박미원·경록(LH 차장) 씨 부친상, 송현웅(현대자동차 차장) 씨 장인상, 박소연(아시아경제 기자) 씨 시부상 = 19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21일 오전 9시 30분, 031-219-4604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우선 맥이 빠진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바짝 끌어안아야 한다. 여기에 청와대에 새로 갖춰진 경제보좌관-정보과학보좌관-중소벤처 비서관 라인을 밀착시켜야 한다. 내각에선 경제협력대책회의를 통해 관계 장관들에게 경제위기의 현실을 주지시키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로드맵에 따른 책임 소재를 확실히 정해주면서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거시정책으로 예산 앞당겨 쓰기에 이어 추경예산 편성으로 틀을 잡았으나 국회 공전(空轉)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 꾸준히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한은이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기업에 칼을 들이대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부조화는 결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어 위험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슷한 시니시즘(냉소주의)과 모든 제도와 권위를 부정하는 니힐리즘(허무주의)이 만연하고 있어 정치 이노베이션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은 복수(複數)의 과제를 단기간에 동시 병행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높은 환경 격변기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5개년 계획은 4대 복합 혁신 과제로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위한 일자리 경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 국가 △고용·노동·복지체계 혁신에 의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5개년 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장기적 과제이거나 너무 많은 사업들로 정책이 파편화되어 지금은 체감도가 푹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말 물러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 내내(2017.6~2018.12) 소득주도성장 대(對) 혁신성장의 논리 싸움과 청와대 정책실과의 파워 게임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경제 성과가 실망스럽게 나타났고, 앞으로 상당 기간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어두운 경제 현실을 이룬 시일 내

에 역전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홍 부총리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키워드는 ‘우선순위’와 ‘V자 회복’이다. 정권의 파위를 집중적으로 경제문제에 투입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 부총리를 상징하는 단어는 ‘조정’이다. 그는 1986년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으로 출발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2년 7월에 시작해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열렸던 ‘경제협력대책회의’ 당시 그는 정책조정국장이었다. 경제부처 정책의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청와대 정책조정실 기획비서관을 거쳐 2017년 5월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지냈다. 그는 당시 차관으로서 직접 범부처 차원의 ‘바이오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했다. 현재의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르기 전까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경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면모를 보여야 한다. 우선 맥이 빠진 제4차 산업혁

명위원회를 바짝 끌어안아야 한다. 여기에 청와대에 새로 갖춰진 경제보좌관-정보과학보좌관-중소벤처 비서관 라인을 밀착시켜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라인이기 때문이다. 내각에선 경제협력대책회의를 통해 관계 장관들에게 경제위기의 현실을 주지시키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로드맵에 따른 책임 소재를 확실히 정해주면서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경제부총리는 정치의 큰 판과 작은 판을 동시에 읽고 끈질기게 대처해야 한다. 여당의 당정회의와 야당의 고위층 직접 설득이 큰 판이라면, 각 당이나 국회 내의 제4차 산업혁명 특위를 찾는 일은 작은 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018년 12월 10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후 5개월 사이에 모두 16차례의 경제협력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경제 활력의 지름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제부터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공병호의
독서산책

기술변혁의 거대한 파고가 덮치는 시대다. 한국은 과거와의 전쟁에 시간을 소진하고 있지만, 시대는 제 갈 길로 질주하고 있다. 거대한 파고의 한 축은 ‘초연결’이다. 세계적인 사물인터넷 전략가이자 미래학자인 W. 데이비드 스티븐슨의 ‘초연결’은 초연결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가 승리하는 쪽에 서게 될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초연결의 완성을 5년 이내로 잡고 있으며, 초연결의 중심에는 IoT(사물인터넷)가 있다.

책을 펼치자마자 쓰레기를 처리하는 신생 기업 빅벨리슬라가 등장한다. 이 기업은 쓰레기통에 사물지능 통신(IoT의 하위 개념)을 추가한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통마다 ‘무선 통신 기능’을 설치하여 쓰레기통을 똑똑하게 만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즈음의 깨달음을 빅벨리슬라 부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IoT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부터 우리는 클라우드로 쓰레기통을 연결했어요. 그러다 문득 도시와 협력해 쓰

레기 수거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선 ‘아하’ 하고 무릎을 쳤죠.”

신기술의 도입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쓰레기통은 스스로 알아서 쓰레기통에 얼마나 쓰레기가 차 있는지 그리고 언제 쓰레기를 버려야 할지를 알려준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평균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수거 일정을 획일적으로 짤 필요가 없게 됐다.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하는 배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수거 일정이 바뀌고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내게 된다. 수거 빈도를 70~80% 줄임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빅벨리슬라는 쓰레기통으로 취합한 방대한 데이터를 고객에게 사용료를 받고 판매한다.

IoT기술은 언제 어디서든 무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그 비용 또한 완전히 무료다. IoT기술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업의 모든 측면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단한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 IoT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 제조 그리고 유통의 모든 영역에서 군살이 완전히 빠지면서 효율성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다. 모든 분야가 제조 단계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므로, 공급과 유통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모든 활동이 예전보다 정확하고 비효율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조직의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크게 높인다. 이전에는 조직의 주요 책임자가 조각조각 나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IoT는 여러 부서가 동시에 최신의 데이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셋째,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과거에는 제조기업은 제품을 출하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끝냈다. 그러나 IoT는 제조사를 ‘제품 판매자’에서 ‘서비스 제

공자’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기업은 고객에게 제품이 아닌 ‘제품의 데이터’를 판매하는 시대가 열린다.

넷째, 유지보수 비용과 제품 생산 불량률이 크게 줄어든다. IoT는 제품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예측 유지보수를 가능하게 해 주고, 그 정보를 설계 과정으로 전달해서 제품을 수정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했던 ‘완전함’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언컨대 다음에 올 가장 큰 변화는 사물인터넷에서 출발할 것”이라는 주장처럼 이 책은 사물인터넷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제조 혁신, 설계 혁신, 유통 혁신, 판매 혁신, 유지보수 혁신, 노동 혁신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병호연구소장

• W. 데이비드 스티븐슨 ‘초연결’

모든 쓰레기통에 IoT를 심는다면

이투데이, 말투데이

☆ 콜럼버스 명인

“처음 생각하는 어렵지만 모방은 쉽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에스파냐 여왕 이사벨의 후원으로 인도를 찾아 항해를 떠나 쿠바, 아이티, 트리니다드 등을 발견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그의 축하 파티에서 많은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를 질투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달걀을 세워 보라고 했다. 세우는 이가 없자 그는 달걀 끝을 깨뜨려 탁자 위에 세웠다. 내일은 그가 세상을 떠난 날. 1451~1506.

☆ 고사성어 / 현량자고(懸梁刺股)

‘머리카락을 대들보에 묶고,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른다’라는 뜻. 분발하여 학문에 정진하는 것을 비유한다. 한(漢)나라 대학자 손경(孫敬)과 전국시대纵横가(縱橫家) 소진(蘇秦) 두 사람의 일화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합쳐졌다. ‘현량’은 손경의 고사. 그는 노끈으로 머리카락을 묶어 대들보에 매달아 졸음을 쫓으며 공부했다. 원전은 몽구(蒙求)와 태평광기(太平廣記). ‘자고’는 소진의 고사. 그는 송곳으로 넓적다리를 찔러 잠을 쫓아가며 공부에 몰두했다. 원전은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편.

☆ 시사상식 / 기저효과(base effect)

비교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지금 상황과 차이가 너무 커서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호황기 기준으로 현재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 나타나게 된다.

☆ 유머 / 아내의 반격

남편이 미모의 인기 여배우가 자신보다 명칭한 남자 배우와 결혼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당치만 크고 머릿속엔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매력적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복도 많지.”

아내가 웃으며 한 말. “여보 그렇게 말해 주니 고마워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이 꽃 들 유통바이오부/flowerslee@



앵그리 실버 vs 실버 서퍼

산업 전망’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능숙하게 조작하는 고령층인 ‘실버 서퍼(silver surfer)’가 새로운 콘텐츠 소비층으로 부상한다고 밝혔다. 4월 고용동향에서도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전 세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대다수 노인들은 ‘디지털 까막눈’이다.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63.1%로 여전히 취약하다.

금융권에선 ‘노인 수수료’도 지적된다. 타행 계좌이체 시 모바일을 이용하면 저렴하지만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창구에서는 4배에 달하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블루보틀커피 한국 1호점 오픈 당일 4시간짜리 대기 줄에 ‘은발의 할머니’가 나타났다. 브라이언 마한 블루보틀 CEO는 은발의 트렌드 세터와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며 “My favorite customer(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객)”라고 밝혔다. 유튜브 CEO 수잔 보이치키는 올해 73세 유투버 박막례 할머니와 만나 세대를 아우르는 그의 콘텐츠야말로 유튜브가 지향하는 바임을 강조했다.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 은발의 박막례 할머니 같은 이른바 ‘신식’ 노인들은 각광받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은 소외당하고 불만이 높아지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9년 콘텐츠

이투데이	社是				주소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02)799-2669 (02)799-2663 (02)799-2648	편집부 사회경제부 유통바이오부	(02)799-2621 (02)799-2612 (02)799-2641	뉴스랩부 국제경제부 중기IT부	(02)799-2664 (02)799-6741 (02)799-2646
				사진팀 금융부 자본시장부	(02)799-2697 (02)799-2665 (02)799-2647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요 대표전화 팩스 광고문의 구독·배달 구독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02)799-2600 (02)799-1003 (02)799-2601 / 2602 (02)799-2684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년 10월 4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영업 부채질 악화, 진짜 위기의 전조인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가계부채가 주춤했다. 정부의 억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결과다.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때 가파르게 늘었다. 당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미국 등 주요국이 가계부채를 줄인 반면 우리 되레 커졌다. 그 덕에 성장률은 다소 높아졌다. 반면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계부채가 늘면 원리금 갚느라 소비가 줄었다. 장기간으로 봤을 때 가계부채는 결국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정책을 꺼낸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가을부터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총 153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년비 증가율은 5.8%에 그쳤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가계부채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풍선효과로 인해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대출이 몰리는 등 부채의 질이 나빠진 것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뒤로하고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다. 바로 자영업자 부채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계부채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자 부채는 약 609조 원이다. 2017년 말에 비해 60조 원가량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흔히 사업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집을 살 때 또 돈을 빌린다. 정부는 자영업자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부채 대출이 겹치는 사람이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 약 50만 명은 대표적인 대출 취약층으로 꼽힌다.

데스크칼럼

안철우
금융부장



최근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시적 분석에서 자영업자 부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채의 규모와 함께 연체 규모와 연체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언론에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문을 닫거나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자영업자들이 소개되면서 시장에서는 가계보다 자영업자 부채가 더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는 부동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업종별 대출 비중은 부동산업(40.9%·임대업 포함), 도소매업(13.2%), 음식숙박업(8.8%), 제조업(7.9%) 순이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8.3%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제조업(2.6%)의 7배, 도소매(6.3%)의 2.9배, 음식·숙박업(9.1%)의 2배에 달한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 부채의 질적 악화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업에 뛰

어든 영향이 크다는 얘기다. 2018년 기준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등록 수는 2014년 10만 명, 46만 호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33만 명, 116만 호로 크게 늘었다. 2008~2017년 중(10년간) 누적 투자수익률을 보면, 아파트·주택이 각각 55.8%, 48.9%로 주식(코스피 기준 30.1%) 등을 상회했다. 당시 한국은행이 밝힌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사업자대출 증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은퇴와 맞물린 자영업 창업 증가를 꼽았다.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한 것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경기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한 간접적인 요소로 분석된다. 최근 한 조사에서도 민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올해 체감 경영수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가 나빠졌다고 답해 심각성은 어느 정도 감지된다. 정부도 자영업자는 전체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부채가 악성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이 여론전에 휩싸이면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대출 문제는 업종별 구분을 적용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영업 비용부담을 가중한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acw@

사설

환율 급등, 경제 기초체력 바닥났다는 경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다. 지난 주말 서울 외환 시장에서 환율은 1달러당 1195.7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2017년 1월 11일(1196.4원)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4월까지만 해도 1140원을 밑돌았지만 5월 들어 고공행진이다. 상승폭 또한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도 훨씬 크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지지선인 1200원을 넘어,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내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당국은 “시장 쏠림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구두개입에 나섰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으로 치닫고 중국 위안화 약세가 뚜렷하다.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한국은 수출 부진이 지속돼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로 뒷걸음질쳤다.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으로 유럽의 시장불안까지 겹치고 있다. 안전자산인 달러에 국제자금이 몰리고, 위안화와 사실상 동조현상을 보이는 우리 원화 약세가 가속화하는 현상이다.

통상 원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돼 수출을 반등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대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넘었던 2017년 초 글로벌 경기회복과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출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작동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수출확장기에 원화 환율이 1%포인트(p) 오를 때 수출증가율이 1.67%p 상승했지만, 수출수축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에는 원화 가치가 낮아졌음에도 수출증가세가 꺾였다.

오히려 원화약세로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인 자금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sell Korea)’ 조짐은 이미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외국인은 9일부터 16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올 들어 최대 규모인 1조5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17일에도 1986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선물시장 매도까지 고려하면, 코스피에서만 순매도가 6조 원에 이르는 규모다.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고, 그것이 원화 가치를 더욱 끌어내리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면서 외국인들은 주식이나 채권을 대거 팔아 치운다.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겨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진다면 원화 가치의 추가 추락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환율시장 개입은 어렵다. 최근 환율불안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와 경기 부진에서 비롯된 추세일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추락을 의미한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봐야 할 이유다.

송영록의 이슈노트

산업부 차장



얼마 전 기자에게 이메일이 한 통 왔다.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한 그는 어머니께서 운동신경질환으로 투병 중이시고 수족의 근력이 약화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기자가 골격근 자극으로 운동 없이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삼성전자가 개발 중이란 기사를 썼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는 “혹시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희망과 함께, 우리 같은 일반인은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메일을 보낸다”고 적었다. 내용 하나하나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기술 상용화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아는 내용이 있으면 회신드리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괜히 희망만 안겨주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 기자의 마음도 편하지 못했다.

기업의 ‘착한 기술’, 누군가에겐 희망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려운 곳에 돈을 기부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나서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착한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미래기술 육성사업 지원과제로 44개를 선정해 연구비 617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기술보국’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10년간 1조5000억 원을 출연해 미래 과학 기술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에는 AI, 로봇 등 미래 기술 연구뿐만 아니라, 난치병 치료를 돕는 연구나 사회적 약자와 공익을 위한 과제도 다수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해 암 투병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지만 장기간 답답한 공간에 격리된 채 지내며 심리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받는다.

환자들은 각자 원하는 콘텐츠를 택해

그들이 원하는 가상 경험을 했다. 체험을 마친 후 그들은 “답답한 병원 안에서 결코 마주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는 또 시각장애인들이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각 보조 애플리케이션 ‘틸루미노’를 2017년 공개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들은 각종 공모전과 지원사업을 통해 소셜벤처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창출이지만,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적인 문제 해결의 첨병 역할도 한다.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을 기업들이 자비를 들여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착한 기술’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희망이다. 기업들의 의지와 연구진의 노력을 통해 언젠간 약자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모두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박수를 보낸다.

syr@



제사상머리에서 싸움질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光州)와 전라남도 일원에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날인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 올해로 39회를 맞았다. 1981년 5월 18일, 피해자들과 시민, 학생 등이 광주의 망월동에 조성된 희생자 묘역에서 추모행사를 가진 후로 범국민적인 추모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졌다. 당시 정권은 추모행사를 못하게 탄압했으나 그날의 민주화정신을 계승하려는 국민들의 열망 속에 기념행사는 해를 거르지 않고 지속되었고, 1997년 5월, 마침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억울하게 죽은 분들을 애도하는 국가적인 ‘제삿날’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못된 집안은 조상의 제사상머리에서 오래 다툼질을 한다”는 말이 있다. 한마음으로 조상을 추모해야 할 자손들이 각자

의 이익에 눈이 멀어 추모는커녕 싸움질만 하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올해, 제39회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 일부 정치인들의 그런 싸움질로 얼룩졌다. 5·18의 비통함과 억울함을 위로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려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지를 저버린 채 오로지 자신의 입장과 자기 당의 이익만을 위하여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5·18이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었다. 평화롭고 행복한 집안을 염원하며 조상님들이 그토록 당부했던 ‘제사상머리에서 다툼질 말라’라는 말의 의미를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깨부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한 민족, 한 핏줄기를 타고난 동포 사이에 오가서는 안 될 막말들을 정치권에서 먼저 경쟁적으로 해대고 있다. 이제, 이런 비열한 싸움은 끝나야 한다. 국민들의 바른 심판이 참으로 필요한 때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제품에서 서비스까지,
고객 감동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LG전자는 한 마음, 한 가족이 된
3900명의 서비스 전문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혁신적인 제품으로 사랑받는 LG전자가
고객 감동을 약속하는 최상의 서비스로 찾아갑니다.
3900명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제품에서 서비스까지 완벽한 모습을 펼쳐가겠습니다.

